

코스피 8471.02 (+267.18)	코스닥 909.31 (+17.79)
금리 (미국 3년) 3.772 (+0.002)	환율 (원/달러) 1543.55 (+4.45)

광동제약
식음료 넘어
신약·천연물 박사
04



금리인상 시그널... 영끌·빚투족 '이자 청구서' 날아온다

한은 “적절한 시기 인상 필요”
부동산·주식 대출 수요 억제 효과
1분기 가계대출 1993조, 3.5% ↑
이미 대출보유 차주엔 ‘상환 부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명시하면서 빚으로 집과 주식을 산 ‘영끌·빚투’ 차주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와 대외 충격으로 시장 금리와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이 오르면 대출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은은 24일 ‘2026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물가 상승 압력 확대와 경기 개선 전망,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금리 인상은 부동산과 주식으로 향하

는 차입(대출) 수요를 억제해 금융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이미 대출을 보유한 가계와 자영업자에게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키우는 ‘빚 청구서’가 될 수 있다.

올해 1분기 말 가계신용(가계빚)은 1993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5% 증가했다. 수도권 주택거래와 주식 관련 대출이 함께 늘면서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폭은 9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신용융자·신용미수 잔액은 39조4000억원,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은 35조4000억원에 달했다.

자영업자 대출도 1095조5000억원으로 전체 금융권 가계·기업대출의 28.5%를 차지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4%였지만 저소득·저신용 다중채무자인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2.68%까지 치솟았다.

대외 여건도 변수다. 한은은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부각되면 국내외 금리 상승 기대와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금리와 금융기관 조달금리가 함께 오르면 가계·기업 대출금리와 이자 부담으로 충격이 이어질 수 있다.

한은의 시장금리 상승 시나리오에서는 자영업자 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과 기업대출 의존도가 높은 상호금융의 예상 신용손실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자이의 증가 등을 감안하면 금융기관의 자본비율 하락폭은 업권별 최대 0.2%포인트(p)에 그쳐 금융시스템 전



신생아 수 증가율 ‘역대최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1~4월 누적 출생아 수는 9만953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5% 늘었다. 이날 경기 고양시 CHA의과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2026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2만4521명으로 전년 같은달보다 3734명(18.0%)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4월 기준 통계 작성 이래

/뉴시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영업자와 가계의 이자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Chat GPT가 생성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이미지.

체의 복원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됐다.

장정수 한은 부총재보는 “금리 인상은 레버리지(차입)를 활용한 주식·부동산 투자의 취약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채무가 많은 취약차주의 부담은 높일 수 있다”며 “두 가지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삼성전자, 90조 자사주 매입 임박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지급용
주가 환산 시점 따라 주식수 달라져

삼성전자가 향후 최대 9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별경영성과급으로 지급되는 자사주의 실제 수령 물량은 주가 흐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회사 측은 지급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최종 결정은 아직 남아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달 노사 임금협상에서 타결된 반도체(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을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다. 성과급은 확정된 재원을 주식으로 환산해 지급한다. 이때문에 어느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환산하느냐에 따라 직원 1인당 받는 주식 수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세후 지급 재원이 1000만원으로 같더라도 기준 주가가 25만원이면 40주를 받지만 40만원으로 오르면 25주로 줄어든다. 주가가 오를수록 같은 재원으로 받는 주식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셈이다.

주식 형태의 성과 보상은 통상 지급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수량을 산정한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지급 시점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산정 기준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매입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삼성

전자가 향후 3년간 매입해야 할 자사주는 약 2억9000만주로, 보통주 발행주식의 5%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년간 주주환원 목적으로 매입한 자사주 총액 30조 7000억원의 3배 규모다.

매입 재원은 노사 합의에서 나왔다. 삼성전자는 DS부문 사업성과의 10.5%를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책정했으며, 지급할 상환은 두지 않았다. 증권가 영업이익 전망을 적용하면 2026~2028년 3년간 성과급 총액은 약 154조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 약 40%를 원천징수한 실질 지급분이 약 90조원이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도입한 성과조건부주식(PSU) 지급분과 완제품(DX) 부문 1인당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 지급분이 더해진다.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3년 영업이익 합산액 1514조원을 적용하면 매입 규모는 더 늘어났다.

지급되는 자사주가 전량 곧바로 시장에 풀리는 것은 아니다. 특별경영성과급으로 지급되는 주식은 3분의 1만 즉시 매도할 수 있으며,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과 2년간 매도가 제한된다. 이에 매입 수요와 락업(보호예수) 효과가 맞물려 유통 물량이 줄면서 주가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자사주의 매입 시점과 규모, 분할 횟수 등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SK하이닉스, 美 ADR 상장... 45조 조달

내달 10일... 신주 1779만 주 규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팹 건설 등
조달자금 전액 시설투자에 사용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 증권거래소 상장을 확정하고 최대 45조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나선다. 확보한 자금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청주 패키징 공장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메모리 생산 인프라 구축에 투입할 예정이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공모와 미국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 상장을 결정했다. 상장 예정일은 내달 10일이다.

이번 ADR 발행은 제3차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신주를 해외 위탁기관에 맡긴 뒤 이를 기초로 ADR을 발행해 해외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경기 이천시 SK 하이닉스 본사. /뉴시스

다. 신주 발행 규모는 1779만주다.

SK하이닉스는 ADR 발행 총액을 최대 45조4534억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전날 종가(255만5000원)를 기준으로 산정한 참고금액으로, 실제 모집 규모는 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북 빌딩)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달한 자금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 건설과 청주 P&T7 어드밴스드 패키징 팹 구축, 극자외선(EUV) 스캐너 등 기계장치 취득을 포함한 시설투자에 전

액 사용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ADR 상장이 단순한 투자 재원 확보를 넘어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기업가치 재평가를 겨냥한 행보로 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 선두 지위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미국 경쟁사인 마이크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가치를 평가받아 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나스닥 상장을 통해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투자 자금을 넓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ADR 상장을 위한 공모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며 상장 절차에 착수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김호철 감사원장 “선관위 회계감사 위한 자료 수집 시작” /사진 뉴시스
▲김용범 “삼성·SK 영업의 성과급, 노사 쟁의 대상 되는지 논의해봐야”

▲김어준 “李 대통령 지지율 하락, 코어 지지층 이탈 때문”
▲“권경애 노쇼” 끝나버린 학폭 소송... 法 “유감이지만 재개는 못해”

▲민주노총 “노봉법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 법 취지 어긋나”
▲아동급식카드로 술·담배 사고 허위결제까지... 정부 관리 강화

수출기업·달러 자산 보유자 '방긋'... 소비자·수입업체 '한숨'

고환율 뉴노멀 시대

경제주체 희비

환율 상승으로 기회-위기 오가
반도체·車·조선 등 환산매출 증가
항공업, 유류비 비용 부담 가중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웃돌면서 경제 주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수출기업과 달러 자산 보유자들은 환차익과 실적 개선을 기대하는 반면 해외여행객과 유학생, 수입업체들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같은 환율 상승이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되고 있는 셈이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23일 1539.4원에 출발했다. 원·달러 환율은 24영업일 연속 1500원대를 웃돌았다.

◆ 수출기업, 환차익 기대감

원·달러 환율 상승의 대표적인 수혜자는 수출기업이다.

특히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업종이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꼽힌다. 예컨대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달러로 팔고 원화로 실적을 집계한다.

환율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면



지난 22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같은 1달러 매출이 원화 기준으로 15.4% 더 커진다. 반도체 한 개 수출가격이 달러로 동일해도 원화 영업이익은 자동으로 늘어난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자동차 업체는 해외 판매가 달러로 거래되고 실적이 원화로 집계되는 구조로, 환율이 오르면 환산 매출이 자동으로 늘어난다.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아이오닉6 한 대를 4만 달러에 팔면, 1300원 환율 기준 원화 환산액은 5200만원이지만 1500원 환율이면 6000만원이 된다. 조선업도 수혜군이다. 선박은 수주 시점에 달러로 계약하고 몇 년 뒤 실제로 인도하는 구조여서, 계약 당시보

다 환율이 높아지면 원화 환산 매출이 그만큼 더 늘어난다.

달러 예금이나 미국 주식 등 달러 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들도 환율 상승의 수혜를 입는다. 같은 달러 자산이라도 원화로 환산한 평가금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주식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은 주가 상승 여부와 별개로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 해외여행·유학·원자재 비용 부담 가중

반면 항공업은 고환율의 최대 피해 업종 가운데 하나다. 항공사는 항공기 리스료와 정비비, 유류비 등 주요 비용을 달러로 지급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환율이 10

원 오를 때마다 710억원의 비용 압박이 생기며, 1500원 수준에서는 비용 증가분이 5000억원대로 확대된다. 항공업계 전반을 합산하면 1조원 규모의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

특히 유류할증료의 경우 항공권 운임과 별도로 부과되는 비용으로, 항공유 가격이 일정기준 이상 오르면 부과되고, 유가 수준에 따라 1단계부터 최대 3단계까지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7월 한국 출발 기준 국제선 유류할증료 책정 기준으로 6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MOPS) 25단계 대비 8단계 낮춘 19단계

적용했다. 다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유류할증료가 유지되고 있는 데다 환율 상승까지 겹치면서 항공사들의 비용 부담은 계속되고 있다.

해외여행객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항공권과 호텔, 식비 등 대부분의 해외여행 경비가 달러 또는 현지 통화 기준으로 책정되는 만큼 환율 상승분이 고스란히 여행 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유학생 역시 등록금과 생활비 송금 부담이 커진다. 미국 대학에 연간 3만달러의 학비를 내는 경우 환율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상승하면 부담액은 39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약 600만원 늘어난다.

수입업체들도 비상이다. 원유와 곡물, 천연가스 등 주요 원자재를 달러로 수입하는 만큼 환율 상승은 곧바로 원가 부담 확대로 이어진다. 기업들은 가격 인상이나 수익성 악화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 상승은 수출기업과 달러 자산 보유자에게는 호재지만 수입업체와 해외 소비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환율이 1500원 안팎의 높은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될 경우 업종별·계층별 체감 경기 차이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우리 기자

yu115@metroseoul.co.kr



metro



이재광 노동인력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중소기업계, 내년 최저임금 동결 강력 촉구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 "어떠한 안전망도 없이 생존 위협받아"

중소기업계가 내년 최저임금 동결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시간당 1만3200원인 올해 최저임금에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이 감당하기 어려우면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는 곳도 많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경제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면서 민 경제 전체가 무너진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소한의 숨을 쉴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이재광 노동인력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고물가·고유가·고환율·고금리의 4중고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안전망이 아니라 도리어 일자리를 줄이고 중소기업·소상공

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부작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재광 위원장을 비롯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 위원인 윤영발 자동판매기운영협동조합 이사장,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종별 대표 8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중소기업계는 "반도체 호조와 대기업 실적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오르고 주가지수는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선 먼 나라 이야기"라며 "계속되는 내수 부진, 물가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 그리고 하루하루 늘어나는 빚 때문에 걱정 속에 잠 못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0.5%이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더 높아진다"며 "이는 다른 나라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한 참석자는 "최저임금을 무작정 인상하기보다는 최저임금 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처지를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근로자들은 최저

임금이라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이 있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어떠한 안전망도 없이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 자식 같은 사업을 어떻게든 키우고 싶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과 끝까지 함께 하고 싶는데 당장 줄 돈이 없어 내보내야만 하는 심정을 대체 누가 알아주겠냐"고 되물었다.

중기중앙회가 이날 발표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경영 상황 대비 올해 최저임금이 '부담스럽다'는 비율은 77.6%에 달했다. 비수도권(81.5%)이 수도권(74.2%)에 비해 7.3%포인트 높았다.

내년 최저임금 적정 변동 수준은 올해 대비 '동결(41.6%)'하거나 '인하(21.0%)'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감내 수준 이상일 경우 1순위 대응책은 '신규 채용 축소'(24.6%)였다. '기준인력 감원(24.0%)', '임금동결·삭감(22.0%)'을 택한다는 곳도 있었다.

/김승호 기자 bada@



metro

금융당국,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 보호 나서

단일종목 변동성 커지며 제도 보완 방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강한 우려를 표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에 착수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 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자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과도한 쏠림 현상과 변동성 위험을 점검하며 추가 안전장치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6.04% 뚫 94.81을 기록했다.

금융당국 인력에서는 기본예탁금 상향과 투자자 교육 강화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현재 개인투자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투자 시 1000만원의 기

본예탁금을 예치하고 금융투자협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당국은 진입 요건을 강화해 투자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상품의 과도한 단기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수수료 인상이나 신규 상품 상장 제한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당국의 메시지가 엇갈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지난해 말 해외 주식 투자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후 당국은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투자 유의를 당부해왔다.

그러나 이 원장이 최근 "증권사만 배 불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최근 높은 회전율과 과도한 매매를 문제삼아 업계에서는 정책 방향에 대한 혼선이 생긴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metro

재정부 "기업효율성·인프라 개선 이어갈 것"

정부가 기업효율성 및 인프라 부문 개선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효율성 등 부진한 부문의 경우, 개선책을 마련해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제1 차관 주재로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2026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의 국가경쟁력 제고 방향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국가경쟁력을 특정 기관의

평가 순위만으로 단정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면서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평가를 받은 부문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취약 부문을 점검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에서 순위 상승을 견인한 기업효율성·인프라분야의 개선 흐름을 지속하는 한편, 정부효율성 등 상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별 개선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적절한 시기 기준금리 인상 필요”... 금융불안 ‘주의단계’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물가 압력 확대·경기 개선 전망 FSI 17.2, 주의단계 기준 웃돌아 FVI 46.0, 장기평균 45.7 상회 수도권 집값·가계빚 재누적 우려 주식관련 대출 등 레버리지 증가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 압력 확대와 경기 개선 전망,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레버리지 투자 증가로 금융불균형이 다시 누적될 가능성에는 경계감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은 24일 내놓은 ‘2026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실물경제 성장세 확대와 금융기관의 양호한 복원력, 대외지급능력을 바탕으로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은은 “2025년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를 2.50%에서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물가 상승 압력 확대 및 경기 개선 전망, 금융안정 리스크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시스템의 단기 불안 상황을 나타내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 5월 17.2를 기록했다. 중동 상황 등의 영향으로 3~4월 상승한 뒤 다소 하락했지만 주의단계 기준인 12를 웃돌았고 지난해 12월 16.3보다도 높았다.



(왼쪽부터) 유재현 한국은행 국제기획부장, 이정연 금융안정기획부장, 장정수 부총재, 임광규 금융안정국장, 문용필 안정분석팀장이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6년 6월) 설명회에 참석했다. /한국은행

중장기적인 금융시스템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올해 1분기 46.0으로 2008년 이후 장기평균인 45.7을 소폭 상회했다. 신용과 자산가격 등에 축적된 금융불균형이 다시 늘고 있다는 의미다.

임광규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FVI는 신용이나 자산가격에 쌓인 금융불균형의 축적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며 “현재 장기평균을 약간 상회하지만 최근 상승폭은 둔화하고 있어 시장금리 상승과 정부 규제 강화 등이 반영되면 오름세가 누그러지거나 하락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말 가계신용은 1993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5%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34.1%로 지난해 3분기 말 139.7%보다 낮아졌고 가계대출 연체율도 1.00%로 장기평균을 밑돌았다.

반면 취약차주 비중은 차주수 기준 6.7%로 지난해 3분기 말 6.4%보다 상승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가 유예 종료로 앞두고 늘어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

고 대출에 반영된 데다 주식 관련 기대대출 증가하면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은 9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장정수 한은 부총재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늘면서 가계부채 비율이 빠르게 하락한 것은 총량 리스크가 완화되는 긍정적인 부분”이라면서도 “주요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DSR과 취약차주 등 질적인 취약성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기업부문의 부실 위험도 지속됐다. 금융기관 기업대출은 1분기 말 197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늘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2.43%로 장기평균인 1.62%를 크게 웃돌았고 중소기업 이자보상배율은 -0.4배로 마이너스 상태를 이어갔다.

금융시장에서는 장기 시장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도 확대됐다. 주가는 반도체 업황 호조와 자본시장

제도 개선 기대에 힘입어 가파르게 올랐지만 변동성도 커졌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높아지며 매매가격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다.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과 유동성 대응 능력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높아지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지금이 순유출됐지만 외화조달 여건과 대외지급능력도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유재현 한은 국제기획부장은 “순대외채권 규모와 낮은 단기외채 비율,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외환보유액은 대외 충격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는 데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해 7월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광범위한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신용·레버리지 투자 75조 육박 조정 땀 하락폭·변동성 증폭

신용융자·미수 잔액 39.4조 레버리지 ETF 순자산 35.4조 조정 땀 강제매각으로 낙폭 확대 비차입 투자자까지 손실 번질 우려

주가 상승과 함께 신용융자·신용미수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시장 조정 시 투자 손실과 가격 변동성을 증폭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다. 차입 투자가 늘면 빚을 내지 않은 투자자에게까지 손실이 전이되는 외부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 ‘2026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신용융자와 신용미수 잔액은 3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레버리지 ETF 순자산 총액도 35조4000억원까지 늘었다.

두 지표 모두 지난해 하반기 이후 빠르게 증가했다. 국내 주가가 반도체 업황 호조와 자본시장 제도 개선 기대 등에 힘입어 가파르게 상승하자 차입이나 레버리지 상품을 이용해 투자 수익률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확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사 신용융자뿐 아니라 캐피탈사 등에서 증권계좌를 담보로 주식 매입 자금을 빌리는 스타펀드도 늘었다. 스타펀드 잔액은 2024년 말 1조2000억원에서 올해 1월 말 1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가계의 기대대출도 지난해 4분기 이후

증가폭이 확대됐다. 올해 1분기 가계 기대대출은 전분기보다 4조8000억원 증가했고 은행 가계대출의 한도 소진율은 36.0%로 높아졌다. 기대대출에는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과 카드론, 보험계약대출 등이 포함된다. 한은은 늘어난 기대대출의 상당 부분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출을 이용한 주식투자가 주가 상승기에는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조정기에는 반대매매와 강제매각을 통해 하락폭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용융자와 미수거래는 담보로 잡힌 주식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의 임의매각이나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레버리지 ETF 역시 투자자의 매매가 늘거나 펀드가 목표 수익률 배수를 유지하기 위해 보유 포지션을 줄이면 주가 하락 방향으로 매매가 집중될 수 있다.

한은이 201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코스피가 전일보다 5% 이상 하락한 조정기를 분석한 결과 평상시보다 레버리지 ETF 자금 순유출과 신용미수 반대매매가 주가 움직임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정수 한은 부총재보는 “가격이 떨어질 때 반대매매를 통해 주식이 처분되면서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대한민국 축구와 교보생명의 팀플레이는 계속됩니다

2002년부터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과 팀플레이를 펼쳐온 교보생명이 2026년에도 함께합니다

*2002-2027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 공식파트너

대한민국 축구 곁에 든든하게 | KYOBO 교보생명

식음료 넘어 '글로벌 신약·천연물'로 제약사 입지 다진다

① 광동제약



최성원·박상영 각자대표 체제
독립적 의사결정·책임경영 수행

지난해 개별기준 매출 1조 110억
식음료 비중 50% 낮춰 체질개선

광동제약은 전통적인 식음료 사업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바이오·신약 부문에 도전하며 체질 개선을 본격화하고 있다.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R&D)을 고도화 하고 과감한 신약 인수합병(M&A)을 통해 차별화된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창립 이후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국민 건강을 책임져 온 내실있는 노력과 시간을 바탕으로 '휴먼 헬스케어 기업'을 향한 새로운 도약(Reboot)을 시작했다.

◆ 체질 개선 성과...개별 매출 1조 돌파

2026년 광동제약은 창립 이후 61년 만에 처음으로 전문경영인 대표이사 시대를 열었다. 10년 넘게 이어온 단독 대표 체제를 종료하고, '전략과 비전'을 전담하는 최성원 회장과 '실행과 소통'을 맡은 박상영 사장의 각자대표 체제를 공식화한 것이다.

조직개편은 두 대표가 각 전문 영역에서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책임경영을 수행함으로써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최성원 대표이사 회장은 전략·신사업·R&D 총괄 CEO로서 회사의 중장기 비전 수립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한다. 신사업 발굴 및 투자, 연구개발 전략 수립 등을 주도하며 광동제약의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영 대표이사 사장은 경영총괄 CEO로서 주요 사업본부와 지원조직을 총괄하며 조직운영 전반을 책임진다. 전사 경영활동의 실행력을 높이고 사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광동제약은 지난해 개별 기준 매출액 1조110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처음 별



도 기준 매출 1조원을 넘어섰다. 연결 기준 매출 역시 1조6595억원을 기록, 안정적인 외형 성장세를 나타냈다.

더 큰 변화는 '체질 개선'에 있었다. 2023년 59% 수준이던 식음료 매출 비중이 50% 수준까지 낮아진 것이다. 이에 반해 의약품 부문 매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며 지난해 4500억원을 돌파, 전체 매출의 약 27.5%까지 올랐다. 2023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규모다.

광동제약은 그동안 삼다수, 비타500 등 식음료 비중이 높아 제약사로서의 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신약 도입 및 백신 공급 품목을 꾸준히 확대하며 전문의약품(ETC) 중심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고 있다.

◆ 전통 천연물 노하우와 글로벌 신약

광동제약은 오랜 기간 많은 비용을 연구개발에 투자해 신약 개발에 나서는 대신, 식음료로 벌어들인 안정적인 수입을 캐시카우 삼아 국내에 필요한 신약을 빠르게 도입하는 전략을 택했다.

전통 한방·천연물 지식과 노하우를 현대 과학으로 표준화·대중화하는 한편, 글로벌 신약과 바이오를 융합해 독창적인 '휴먼 헬스케어 기업'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다.

가장 먼저 주력한 분야는 '안과'였다. 광동제약이 국내 독점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노안 치료제 '유베지'는 지난 2월 미국 식품의약품(FDA)의 승인을 받았다.



최성원 대표이사 회장

“중장기 비전·미래 성장동력 확보
신사업 발굴·연구개발 전략 수립”



박상영 대표이사 사장

“전사 경영활동 실행력 높이고
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계획”

유베지는 FDA 승인을 받은 최초의 이중 성분 노안 치료 점안제로 1일 1회 점안으로 동공을 수축시켜 최대 10시간까지 효과가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안과 희귀질환 치료제 '탁손', 망막색소변성증 치료제 후보물질 'OCU400', 소아근시 신약 후보물질 'NVK002' 등의 국내 독점권을 차례로 확보하며, 안과용제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노안치료제 '유베지' 美 FDA 승인 등 안과·희귀질환 시장 영향력 확대

'가다실·싱그릭스' 국내유통 전담 페렴구균 백신 '캡박시브' 유통계약

식의약 통합 천연물 소재 개발 개별인정형 원료 독점 확보 주력

희귀질환 의약품도 공략 분야 중 하나다. 광동제약은 2023년 이탈리아 희귀의약품 전문기업 키에시(CHIESI)와의 계약을 통해 파브리병 치료제 '엘파브리오', 알파-만노시드 축적증 치료제 '탐제데' 등 희귀질환 치료제 4종의 국내 독점 판매·유통권을 확보했다.

백신 사업에서도 영향력을 넓히는 추세다. 광동제약은 현재 한국MSD의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가다실9'과 GSK의 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의 국내 유통을 전담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MSD와 성인용 21가 폐렴구균 백신인 '캡박시브'의 공동 마케팅·유통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광동제약의 뿌리가 되는 한방 의약품도 기업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경옥고, 우황정심원 등 대표적인 천연물 기반 의약품의 고유 자산을 고도화하고, 이를 현

대 과학 기술과 접목해 대중적인 건강 음료 및 건강기능식품(건기식)으로 외연을 넓히고 있다.

'천연물융합연구개발본부'를 중심으로 통합 연구 체계를 정립했으며, 최근 건기식 제조 전문기업인 비헬스케어를 인수, '광동헬스바이오'로 재출범하며 사업 영역 확장을 본격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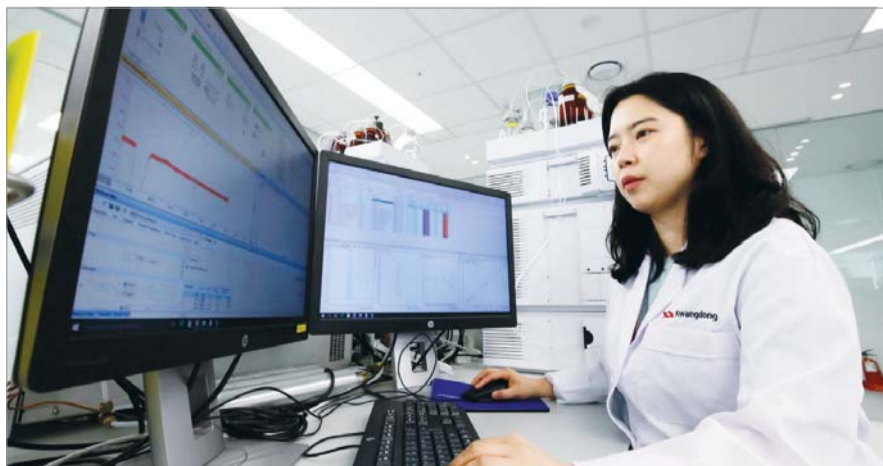
광동제약이 주력하는 것은 '식의약 통합 천연물 소재 개발' '개별인정형 원료 독점 확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하는 개별인정형 원료는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새로운 건강 원료로, 등록에 성공할 경우 6년간 독점 제조·판매권을 갖게 된다.

광동제약 천연물융합연구개발본부는 녹용당귀등 복합추출물이 남성 전립선 비대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임상으로 입증하며 국내 최초 녹용을 활용한 개별인정형 원료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이어 참당귀녹용황기 복합추출물의 피로도 개선 효과를 입증해 연이어 식약처 개별인정 허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산림청이 주진하는 총 36억원 규모의 대형 국책과제 주관 연구기관으로 지정, 2030년까지 국내 산림 속 천연물 자원을 AI 기술로 표준화하고, 고령화 시대에 맞는 혁신 바이오 소재로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한방 지식과 천연물 R&D 노하우는 광동제약만이 가진 가장 강력한 차별점"이라며 "전통 자원의 현대적 재해석과 과감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의약품, 건기식, 백신, 건강음료 등 전방위 헬스케어 영역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휴먼 헬스케어 브랜드 기업'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광동제약 연구소 모습.

/광동제약



가다실9.



녹용 원료 기반 건기식 '녹용전립선보감'.



metro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1982



금융보국
금융으로 나라를 이롭게 한다

나라를 위한 은행

대중의 은행

서로 돕는 은행

믿음직한 은행

가장 편리한 은행

세계 속의 은행

젊은 세대의 은행

신한의 창업이념,
포용금융으로
이어지다

포용금융 2.0

2026

포용금융 지원 확대

4.5조 원

서민과 소상공인 대출지원,
저축은행 대한 대상 확대 등

장기연체고객 재기지원

5천억 원

업계 최대 규모의
장기 부실채권 소각

차별화된 대안신용평가

제주은행 ERP banking
'DJ BANK'

'땡겨요' 이차보전 사업자 대출 등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김용범 “닥치고 지어야 한다”… 주택 공급 부족 정면 지적

(청와대 정책실장)

지자체·중앙정부 협력 부족 언급
수도권 중심 부동산 공급대책 시사
李 지지율 하락 해석에는 거리두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공급 문제에 대해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공급 부족도 문제라는 인식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조만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토론회를 열 방침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하락세를 보인 데 대해 “노동이나 세제나 주택 등 정책 기조 때문에 지지율이 크게 움직였다고는 생각을 안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저의 제일 큰 걱정거리는 직접적으로 (말해서) 부동산이다. 주택 문제가 저로서도 제일 어렵다”며 “많이 지적하는대로 전월세가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다. 당연히 걱정을 하고 있고, 수급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2023년~2024년에 PF부터 고금리 등 얼마나 어려웠나”라며 “예년보다 30~40% 공급이 될 때 준비가 될 것이고 그 결과가 지금 온다. 2~3년 전부터 준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가 안 된 게 갑자기 올 수 없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특단의 방안들을 서로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유동성이나 거시 매크로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데, 부동산에서는 사실 수급만큼이나 매크로도 중요해서 대단히 도전적인 상황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급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화두를 던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감한다”고도 했다. 이어 “닥치고 지어야

한다. 닥치고”라며 “그런 의미에서는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태릉 등 서울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공급 추진이 어려움을 겪는 데 대해선 “부처도 그렇고 경마장도 그렇고 그렇게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사냐”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광역단체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의 발언은 조만간 정부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도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에서 “세제·금융·규제·공급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조만간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며 부동산 정책 발표를 예고한 바 있다. 내달 정부에서 세계계편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와 맞물려 다른 부동산 정책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와대는 곧 부동산 정책에 관련한 국민 의견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부동산 정책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아직 일시와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김 실장은 정부의 6·27과 10·15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며 “얼마나 강한 조치냐”면서도 “월세나 이런 것이 도드라지고 있고, 이 국면에서 구조적으로 광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부동산, 주택을 어떻게 안정시킬지 정말 지혜를 많이 모으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노동·세제·주택 정책 방향에서 문제가 있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데 민심을 감안해 방향 전환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큰 전환을 해야 한다기보다 미진했던 부분들을 세심하게 더 듣고 신중하게 정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정도의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하락세를 보인 것은 정책 기조 때문은 아

니라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지지율은 당연히 중요하다. 분석도 하고 있고 경청도 하고 있고 바뀌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면서 “청년 세대에 대한 전면적인 관심을 우선순위로 더 뒤야겠다는 내부 논의도 있다”고 전했다.

“정책 방향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김 실장은 “문제가 없다기보다 노동과 세제, 주택 때문에 지지율이 큰 폭으로 빠졌다고 생각하진 않고, 선거가 있었고 여러가지 내부적으로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계기가 있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지난 1년을 보면 (지지율)이 크게 출렁이는 시기가 한두 차례 있었다”며 “지난 번엔 선거 없이 사면 등 때문에 한번 출렁였다가 본 궤도로 복귀한 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선거라는 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들여다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과 세제 부분이 가장 큰 (지지율 하락) 이유라고 보긴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김 실장은 “정책 방향은 유지하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서예진 기자

sjy@metroseoul.co.kr



metro

정청래, 민주당 대표 사퇴… 연임 도전

호남·친문·강성 지지층 공략 나서
“이 대통령 지킬 사람 나” 연대 강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당대표직을 사퇴하면서 8·17 전당대회 연임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정 대표는 연임을 위해 호남과 친문(친문재인)계, 강성 지지층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며칠간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저 자신과 정치 인생을 돌아봤다”며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연임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러저러한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나다”라고 했다. 전당대회가 ‘병청갈등(이재명-정청래 갈등)’으로 비춰지는 걸 불식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이 대통령과는 2007년도에 만나 20년 동안 속 깊은 대화를 가장 많이 한 정치인이 정청래”라며 “이 대통령과 저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이자 한 몸 공동체다. 이 대통령이 성공해야 저도 성공한다. 대통령의 성공과 그와의 의리는 내가 끝까지 지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전통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여럿 발신했다. “저는 행동하는 양심 감대중 대통령의 동고동 사자가 있는 마포구 국회의원”, ‘노사모’, ‘문재인 당대표 시절 최고위원’ 등 민주당의 이전 정부 대통령들을 모두 언급했다.

또 정 전 대표는 이날 당 대표 사퇴 후 첫 일정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 문 전 대통령이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에 설치된 평산 책방 부스를 방문했는데, 이곳을 찾은 것이다.

아울러 정 전 대표는 최근 호남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 계속 비공개로 호남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대표는 전날 공개 일정 없이 전남 화순, 광주 송정읍을 찾아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여성계 행사에 참석했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전북 군산·전주·익산, 20일 전남 담양·순천·장흥·해남 등을 방문했다. 이번 지방선거에 이어 전북지사 공천 등 잡음이 생기면서 호남 민심이 등을 돌렸다는 분석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강성 당원을 향한 메시지도 내놓았다. 정 대표는 “전국에서 만난 많은 사람이 제게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1인1표제’ 감사한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세운을 잡고 검찰개혁을 꼭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신다”고 했다. 1인1표(대위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중 동일), 검찰개혁은 당내 강성 지지층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의제다. /서예진 기자

국힘 장동혁 “당대표 거취는 당원 결정”

투표용지 사태에는 ‘재선거’ 역설

옛새 만에 당무에 복귀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는 이들을 향해 “당대표 거취는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다. 당대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니고, 몇몇 의원이 결정할 문제는 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일축한 셈이다. 또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재선거”만이 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퇴원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민주당이 ‘병청대전’ 소용돌이에 길을 잃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데드크로스로, 우리 당을 향한 국민의 지지는 높아지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당이 제대로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지난 18일 올 초 있었던 단식의 여파, 지방선거 및 올림픽 공원 시위 참석 등으로 인한 과로로 입원을 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지금 우리가 하나 돼 싸우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지지는 다시 우리당을 떠날 것”이라며 “근데 우리 당의 모습은 어떤가.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에도 힘이 부치는 마당에 무가치한 갈등으로 힘을 소진하고 있다. 이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그런 일로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 당원들이 원하는 것은 이 정권의 폭정을 멈춰 세우고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것, 이를 위해 하나로 똘똘 뭉치라는 것이 당원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당을 흔들고 당심과 민심에서 멀어지는 모습이야말로 당원들이 가장 분노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해결책은 “재선거”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참정권 수호를 위한 특검’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는 “어제 국조특위를 보면서 특검과 재선거 거부에 없다는 생각을 더 굳혔다”며 “올림픽 공원의 순수한 시민들과 함께 참정권 회복 특검과 재선거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에 대해 “언어 유평타가 조작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즐기게 우겨댔던 공소취소 근거가 완전히 사라졌다”며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을 포기하고 법원이 이재명 재판 재개하게 우리당 모두 하나로 힘을 모아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의 국민의힘 의원 모임에 강연자로 나서 원내 중심 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정당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국회에서 정치 개혁 의제 중 하나로 다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당대표 혼자 결정하거나 의원 몇명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 및 김민석 총리 등 여권에서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혁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국민이 원하는 특검과 재선거에 대한 답은 하지 않은 채 마음만 저 앞에 개헌으로 가있다”며 “연임 여부에 대한 답을 하고 그다음에 개헌을 얘기하라”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李 “징집병 최소화… 선택적 모병제 전환”

연평도 찾아 장병들과 타운홀 미팅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해병부대를 찾아 “제가 과거에 여러 차례 약속했던 바대로 징집병들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자기 자신의 직장으로 군을 선택할 수 있게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 해병대 연평부대 포9대대에서 진행된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해병대 군복을 입은 이 대통령은 이날 장병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간담회를 한 후 부대시설을 시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 군대도 첨단

과학기술로 재무장을 해야 되겠다”면서 “군인들의 역할도 과거와는 달리 첨단무기 장비 체제를 운영하는 전문 병사로, 간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들이 의무 징집병(단기)과 모집 형태의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장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장병들의 건의를 듣는 ‘타운홀 미팅’처럼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일단 이전에 병사들에게서 육지로나갈 때 배표가 일반인과 같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박근혜 대선시당선인에게 이야기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25 전쟁일 주간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4일 인천 옹진군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K2C1 소총 사격을 하고 있다. /뉴시스

병사들은 노후 시설 정비, 위문열차 방문, 준4군 체제 전환에 대한 감사, 군의관 지원, 포병 훈련 강화, 휴가 제도 개편 검토, 병역명문가 할인 혜택 개선 등 다양한 사안을 건의했다. /서예진 기자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SEOUL
M! SOUL

호국보훈의 달

값진 희생과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의 정원 내
감사의 빛 23



소득따라 기초연금 차등... 국민연금 심의·운용 이원화 논의

정치권 '연금개혁' 재시동
보건복지부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하반기 개편방향 설정·단계적 추진
여당,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 논의
"1600조 국민자산, 구조개혁 시점"

연금제도의 보장확대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하는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논의를 본격화했고, 국회에서는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연금 제도의 운영과 기금 운용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등장했다. 국민연금공단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연금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기관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최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 개혁 논의를 본격화했다. 6월 지방선거를 이유로 입법 논의를 미뤄왔던 22대 국회 연금특위가 하반기 원 구성 이후부터 활동을 재개할 예정인 만큼, 연금개혁 논의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다.

◆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논의

정부는 기초연금 개혁 논의를 본격화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박홍배 민주당 의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출범 1주년 정책간담회에서 '하후상박형 기초연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기준선이 높아졌고, 고령화로 제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정 장관은 "하반기 내 기초연금 개편안의 방향을 설정하고, 단계적인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하후상박형 기초연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액에 차등을 뒤 전체적인 지급액을 줄이고 소득이 없거나 낮은 노인에는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도 가난한 노인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하후상박형 연금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기초연금 개혁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국회 예정처는 지난 22일 '기초연금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를 통해 기초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면 향후 10년 동안 53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소득 하위 30% 노인의 연금을 40만원까지 올리는 대신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60%로 낮추면 21조원의 재정을 절감할 것으로 분석했다.

◆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 공론화

여당은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논의에 돌입했다. 박홍배 의원

을 비롯해 8명의 여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7일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혁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및 전문성 제고를 목표로 한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연금제도의 운영과 기금운용을 모두 맡고 있다.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만큼, 기금이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나 특정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을 위험이 상존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을 나눠, 기금운용 기능을 복지부 외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박홍배 의원은 "1600조원 규모의 국민 노후자산을 과거 체계에 그대로 맡겨둘 수는 없다"라며 "구조개혁을 통해 세계 최상위권의 기금 규모에 걸맞은 독립성과 책임성,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을 균형있게 구현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 연금공단, '기금형 퇴직연금' 참여 검토

국민연금공단은 퇴직연금 논의에 참여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정치권은 지난 2월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및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합의했다. 오는 7월 중 제도의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기관 참여 의사를 재확인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 시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운용상품을 선택하는 대신 전문기관에 운용을 위임하는 방식이다. 전문성이 높은 운용기관이 대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는 만큼, 가입자의 투자지식이 부족해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연금공단의 기금형 참여 시 기존 운용기관에서의 대규모 자금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쉐pherd도 복잡하다.

김성주 이사장은 "연금공단의 기금형 사업 참여는 민간 금융기관의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 역할을 할 것이고, 작은 모델을 만드는 수준인 만큼 민간 금융기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라며 "연금공단의 참여 시 더 낮은 수수료와 높은 수익률을 가입자에게 돌려드릴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양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규제·빚투 영향... 카드론 43조 역대최대

삼성·신한·현대 등 카드사 9곳 합산
롯데 579억 증가, 이어 신한 564억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카드론 잔액이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행권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와 빚투(빚내서 투자)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다.

2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 9곳(삼성·신한·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비씨·NH농협카드)의 지난달 카드론 잔액은 43조2534억원으로 집계됐다.

롯데카드(+573억원)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신한카드(+564억원), NH농협카드(+545억원), KB국민카드(+425억원), 현대카드(+379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 카드론 잔액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이어오다 지난 4월 금융당국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 43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대출 풍선효과와 빚투 수요 확산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다. 특히, 증시 호황으로 빚투 수요가 은행 대출 규제에 따른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계절적 요인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통상적으로 카드론 잔액은 5월에 증가 흐름을 보여왔다. 카드론 잔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1566억원 증가했으나 올해는 2704억원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가정의 달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자금 수요 증가와 은행권 대출 심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카드론 외 다른 대출 서비스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현금서비스 잔액은 6조5037억원으로 전달 보다 3072억원 확대됐다. 결제성 리

빙빙 잔액은 6조7999억원으로 934억원 증가했다. 대한대출 잔액은 1조6559억원으로 576억원 늘었다. 대한대출은 기존 카드론 등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새로 받는 대출을 의미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카드론이 급증하고 있는 일부 카드사를 대상으로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준수하고, 리스크 관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빚투 수요가 전방위로 확산되자 2금융권 대출 과열을 방어하고 나선 것.

다만, 업계는 인위적으로 카드론 수율을 조절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카드론은 카드사의 기본적인 영업활동의 영역"이라며 "고객의 수요가 있는데 이를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나서서 어디까지 대출해 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조절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하나금융-소진공, 청년 소상공인 정착 지원

'하나 On, 청년 On' 프로젝트 추진

하나금융그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청년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소상공인의 정착 지원을 통한 지역상권 활력 제고 및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는 '하나 On, 청년 On'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양사는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4년간 전국에 분포한 60개 지역상권에서 소상공인 사업장 약 4000여 곳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 ▲성과 확산형 통합 홍보 등에 상호 협력한다.

아울러 하나금융은 4년간 총 5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상권 단위의 역량강화 교육, 청년 소상공인 육성 및 상권 활성화, 홍보를 연계한 '하나 On, 청년 On'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하나금융은 청년 소상공인의 지역 정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왼쪽)이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디지털 활용, 고객관리, 사업운영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하고 정책 이해와 매출 전략 교육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 소상공인이 직접 상권 활성화 사업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상권 소상공인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일반형 14개 팀과 전국 단위 특화형 1개 팀을 선발해 최대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나우리 기자 yul115@

대우건설, AI 기반 스마트 안전기술 시연

과천 'G-TOWN' 현장서 간담회

대우건설은 지난 22일 경기도 과천시 'G-TOWN' 개발사업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소통 간담회를 갖고 AI 기반 스마트 안전 기술을 시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보현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근로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기반 스마트 안전 기술 시연과 현장 적용 사례 공유 등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 소개된 AI 실시간 번역 시스템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교육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아침조회와 TBM

(Tool Box Meeting), 각종 안전교육 내용을 다국어로 실시간 제공한다. 근로자는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해 번역 채널에 접속하면 즉시 번역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에 건설 현장 특화 용어를 사전에 반영해 번역 정확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언어 장벽으로 인한의 사소통 한계를 보완하고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I 기반 CCTV 스마트 통합안전관제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해당 시스템은 근로자의 위험 행동이나 이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즉각적인 대응을 지원하며, 위험구역 출입 통제와 위치 관계 기능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의 체계성을 높인

다. 또한 안전시설 미설치 구간, 보호구 미착용, 화재 발생, 근로자 쓰러짐 등 다양한 위험 상황을 감지해 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대우건설은 태블릿 기반 스마트 안전보건교육 시스템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신규 근로자는 태블릿을 통해 기초 문진 및 면접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안전보건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13개 국어를 지원해 외국인 근로자도 언어 장벽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종이 문서 중심 업무를 디지털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페이퍼리스(Paperless) 현장 구현에도 기여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현장 전반으로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성미 기자 smahn1@

유튜브·SNS 불법 코인 영업 '주의보'

금융위 FIU, 사업자 여부 확인해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와의 거래로 발생한 피해는 사실상 구제가 어려운 만큼 거래 전 신고 사업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FIU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FIU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용 시 자금 세탁방지 및 이용자자산 보호장

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마약 등과 관련된 범죄자금 은닉,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면서도 FIU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내 영업 사실을 은폐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유학생, 관광객,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또는 신분 노출을 꺼리는 내·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사설 환전소가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직접 매매한 뒤 원화 등 법정화폐와 교환해 주는 사례도 확인됐다.

/나우리 기자

삼성전자, AI 홈 사업 힘 준다 단독주택 특화 주거공간 혁신

‘삼성 AI 모듈러 홈’ 쇼룸 선보여
스마트싱스 기반 특화기능 제공
이상상황 발생시 긴급대응 지원

삼성전자가 모듈러 주택 시장 공략에 나섰다. AI 가전과 스마트홈 플랫폼 ‘스마트싱스’를 앞세워 단독주택에 특화된 통합 주거 솔루션 ‘삼성 AI 모듈러 홈’을 선보이며 AI 홈 사업 영역을 주거 공간 전반으로 확대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삼성 AI 모듈러 홈’ 쇼룸에서 단독주택에 특화된 AI 주거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24일 밝혔다. 삼성 AI 모듈러 홈은 목조 모듈러 주택 전문기업 공간제작용과 협력해 구현한 솔루션으로, 주택 설계 단계부터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주택 디자인, AI 가전의 규격, 급배수 등 설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부 공간과 가구에 최적화된 상태로 탑재된다.

이날 쇼룸은 단독주택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다양한 AI 홈 시나리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삼성전자는 ▲집입·보안 ▲화재·누수 ▲에너지 관리 ▲가족·지인 초대 등 네 가지 영역에 특화된 AI 기능을 집중 소개했다.

단독주택은 공동주택보다 외부와 맞닿은 공간이 많아 보안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스마트싱스를 기반으로 AI 도어캠과 홈캠, 로봇청소기 등을 연동해 집 안팎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관에 설치된 AI 도어캠은 문밖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스마트폰과 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삼성 AI 모듈러 홈’ 쇼룸 외관. /삼성전자



이신영 삼성전자 DA사업부 뉴비즈팀 그룹장이 ‘삼성 AI 모듈러 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삼성전자

전 스크린으로 보여주며, 에스원 출동 서비스와 연계한 긴급 대응도 지원한다.

화재나 누수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연결된 센서가 이를 감지해 사용자에게 즉시 알림을 보내고, 집 안 조명과 TV, 스피커, 로봇청소기 등을 통해 위험 상황을 안내한다. AI 기반 원격진단 서비스(IR M)는 가전제품의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이상 발생 시 조치 방법과 부품 교체 시기를 알려줘 유지관리 부담을 줄여준다.

에너지 절감 기능도 강조했다. 스마트싱스 기반 ‘AI 절약모드’는 실시간 전력 사용량을 분석해 누진 구간 도달 전 연결된 가전을 절전 모드로 전환한다. 재질 센서와 블라인드, 에어컨을 연동해 여름철에는 실내 온도 상승을 줄이고 겨울철에는 일조량을 확보하는 등 계절과 환경에 맞춘 자동 제어도 가능하다. 고효율 ‘EHS 히트펌프 보일러’를 적용하면 기존 등유 보일러 대비 난방비를 절반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다.

생활 편의 기능도 강화했다. 스마트싱스 자동화 기능을 활용하면 가족이나 지인이 도착하기 전 조명과 실내 온도, 음악을 한번에 설정할 수 있다. 비스포크 AI 패밀리러브’ 냉장고는 식재료 인식과 관리, 레시피 추천을 지원하며, 비스포크 AI 콤팩트’ 세탁건조기와 비스포크 AI 스티밍 울트라’ 로봇청소기 등도 연동돼 가사 부담을 덜어준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LG전자, ‘시그니처 올레드 W’ 글로벌 출시

무선 저지연 전송 기술로 초슬림화

LG전자가 초프리미엄 올레드 TV 신제품을 앞세워 프리미엄 TV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세계 최초 무선 저지연 전송 기술과 최신 인공지능(AI) 프로세서를 적용한 차세대 제품을 선보이며 글로벌 올레드 TV 시장 리더십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국내를 시작으로 차세대 월페이퍼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W’ (모델명 W6)를 글로벌 시장에 순차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품은 연필 한 자루 수준인 0.9cm대의 두께로 벽에 밀착되는 2026년형 무선 월페이퍼 TV다. 패널부터 파워보드, 메인보드, 스피커에 이르는 모든 부품에 초슬림화 기술을 적용해 울인원 초슬림 디자인을 구현했다.

특히 LG전자는 글로벌 인증기관 TUV 라인란드로부터 ‘진정한 무선 저지연 비전’ 인증을 세계 최초로 받은 차별화된 무선 전송 기술로 신제품의 초슬림 디자인을 완성했다. 이를 통해 LG 시그니처 올레드 W는 4K·165Hz 주사율의 고품질 영상을



월페이퍼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W’ /LG전자

기존 무선 전송 시 흔히 발생하는 화질의 손실·지연 없이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2026년형 LG 올레드 TV에 탑재된 최신 올레드 화질·음질 AI 프로세서 ‘3세대 알파 11(α 11 4K Gen3)’은 5.6배 향상된 NPU 성능으로 빠른 화면 변화에도 깨끗한 화질을 유지하고, 그래픽 처리 성능도 70% 높아져 더욱 자연스럽고 깊이 있는 화질을 보여준다.

LG 시그니처 올레드 W의 가격은 출하 기준 77형 1050만원, 83형 1600만원이다.

한편 LG전자는 ‘LG 시그니처 올레드 T’의 새로운 라인업인 T6도 국내에 출시한다. /차현정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 데이터 기반 신약개발

디지털 임상 기업 알체디스 파트너십

삼성전자가 갤럭시 위치로 수집한 일상 생체 데이터를 신약 개발 임상시험에 본격 투입한다.

2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전일 데이터 기반 디지털 임상시험 전문 기업 알체디스(Alcedis)와 파트너십을 맺고 갤럭시 위치 센서로 수집한 생체 데이터를 신약의 효과·안전성 평가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공동 개발한다.

양사는 데이터 수집부터 연구 참여자 모니터링, 임상시험 운영, 규제 대응까지

임상 연구 전 과정에 걸쳐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최종민 삼성전자 MX사업부 헬스케어 그룹 상무는 “임상 연구는 기술과 과학적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파트너가 힘을 모아 인간의 건강을 더 깊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그동안 삼성 헬스 SDK 등 여러 개발 도구로 연구자들을 지원해왔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일상의 데이터가 신약 개발 연구와 환자를 위한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광물 회수 등 기술력 강화... 수익성 대폭 개선

K-산업 돋보기

고려아연 ‘체질개선 박차’

최윤범회장 취임 후 R&D 비용 급증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신사업 가속

세계 최대 비철금속 제련업체인 고려아연은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며 안정적인 성장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 같은 성장 배경에는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기술력 강화로 핵심광물 회수율 증대와 신사업 전략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지난해에도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티모니 등 희소금속을 대량 생산하며 연간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하는 등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 R&D 투자 확대로 기술력 강화... 진짜 무기는 ‘제련·회수’

고려아연은 연구개발(R&D)부터 전략 광물, 자원 순환, 환경, 안전 인프라 등 전 방위에 걸쳐 자금을 집행해 미국 제련소 건립 투자와 국내 투자를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윤범 회장이 취임한 2022년을 기점으로 고려아연의 R&D 비용은 빠르게 상승했다. 2022년 75억원에서 2023년 105억원, 2024년 112억원,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지난해 6월 온산제련소 내 안티모니 공장을 방문해 생산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고려아연

2025년 178억원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매출 대비 비중도 0.09%에서 0.17%로 증가했다.

이같은 기술력 강화로 전자제품에 주로 사용되며 금속 배터민이라고 불리는 인듐을 비롯해 전략광물자원인 안티모니와 비스무트, 텔루륨 등 매출이익률이 높은 희귀·희소 금속의 회수율 증대에 수익성 개선을 이끌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 다수의 제련소들은 목적금속 위주의 생산을 진행하고, 목적 금속 회수후의 잔재는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전 세계 유일하게 아연-연-동 통합공정을 운영하며 현재 아연 및 연정광 안에 포함된 극소량의 희소, 희귀금속 12가지를 추출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지난 50년간

끊임없는 기술개발 투자와 조업 개선을 통해 가능했다.

고려아연은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인 희소, 희귀금속의 회수 능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희귀금속 회수율을 품목별로 20~30% 이상 끌어올려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기존 제련업을 경쟁력 있는 친환경 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인천 송도에 2000억원을 투입해 연구·개발(R&D)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송도 R&D센터는 신성장동력 트로이카 드라이브의 핵심 사업인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 이차전지 소재, 자원순환 사업 외 기존 제련사업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 개선과 원가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2025년 연말 공사를 시작해 2027년 4월 준공 예정이다.

또 고려아연은 지난해 말 ‘아연-연-동 통합공정’을 활용한 희소금속 농축·회수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신청한 상태다. 이번에 신청한 기술에는 탄약과 방산 전자장비, 방호 합금 등 방산 분야 핵심 소재로 쓰이는 안티모니 제조 기술도 포함돼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와 안보와 직결되는 기술을 지키고 국내 첨단·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대한항공,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 참가

무인기·UAM 등 미래 기술 선보일

대한항공은 24~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기술대전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대표 국토교통 기술 전시회다.

대한항공은 이번 전시에서 공중의 드론과 지상의 로버가 협업하는 AI 기반 항공기 로봇 검사 시스템을 선보인다. 기존 정비사의 육안 점검 방식을 항공기 상부

를 살피는 드론과 하부를 점검하는 로버의 군집 운영, AI 분석 체계로 전환한 기술이다.

미래 무인 항공체계 기술도 공개한다. 무인기 자율 임무 수행 시스템 ‘AI 파일럿(AIPilot)’은 개발 중인 저피탐 무인편대기와 아음속 표적기 등 여러 무인기 플랫폼에 AI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이다.

대한항공은 UAM 국가전략기술사업단과 함께 통합 교통관리 솔루션 ‘어크로스(ACROSS)’도 공동 전시한다. /양성운 기자

LG화학, 지속가능항공유 기술 실증 착수

이산화탄소 전환 기술 고도화

LG화학이 이산화탄소를 자원으로 활용해 지속가능항공유(e-SAF)를 생산하는 기술 실증에 착수한다.

LG화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CCU(탄소 포집·활용) 메가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산화탄소를 지속가능항공유로 전환하는 기술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LG화학이 총괄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현대건설, 엘티메탈, 프로켄에너지머링을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고등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UNIST, 군산대학교, 충청남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다. /원관희 기자 wkh@

삼양그룹, 3900억 향료기업 품고 ‘고부가 소재사업’ 재편

식품 원료서 향료·향장까지 진출
반도체용 고분자·PAG 사업 강화
KCI·버드트로 퍼스널케어 보강
이소소르비드 연 1.5만톤 체제
AI서버·의료 분야 제품군 다변화



삼양그룹 본사 전경. /삼양그룹

삼양그룹이 식품과 화학을 양축으로 스페셜티 중심 사업 재편에 나서고 있다. 전통 소재 사업의 수익성 한계를 넘어 향료, 반도체 소재, 퍼스널케어, 친환경 소재 등 고부가가치 사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우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양그룹은 최근 식품소재와 화학소재 전반에서 기술 경쟁력과 고객 맞춤형 기능을 앞세운 제품군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기존의 기초 소재 중심 사업만으로는 성장 여력이 제한적인 만큼 수익성과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넓히는 전략이다.

식품소재 부문에서는 기능성 원료에 향료 사업을 더하는 방식으로 사업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삼양그룹은 최근 약 3900억원을 투입해 일본 5대 향료기업으로 꼽히는 소다 아로마틱을 인수했다. 소

다 아로마틱은 식품 향료와 향수·화장품 용 향장 등을 주력으로 하며 일본과 중국, 대만, 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5개국에 7개 생산기지를 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가 설탕과 밀가루, 전분당 중심의 식품소재 사업을 향료·향장 분야까지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 보고 있다.

반도체 소재도 스페셜티사업의 한 축으로 꼽힌다. 삼양엔씨켐은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계열사로, 포토레지스트 핵심 원료인 고분자(Polymer)와 광산발산제(PAG)를 생산하고 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회로 패턴을 웨이퍼에 구현하는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감광 소재로 고분자는 패턴 형성의 기반이 되고 PAG는 빛을 받으면 산을 발생시켜 화학 반응을 유도한다. 삼양엔씨켐의 생산능력은 PR 용 고분자 연 240톤, PAG 연 20톤 규모다.

퍼스널케어 사업은 KCI와 버드트 인수를 통해 화장품·삼푸용 고기능 원료뿐 아

니라 산업용 계면활성제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 식품과 화학을 넘어 생활소비재 소재 영역까지 스페셜티 사업 범위를 넓히는 흐름이다.

친환경 사업에서는 삼양이노켐의 이소소르비드가 핵심 제품으로 꼽힌다. 이소소르비드는 옥수수 등 식물 자원 유래 전분을 원료로 생산하는 화이트바이오 소재로 플라스틱과 코팅제, 산업용 소재 등에 활용된다. 삼양이노켐은 연간 1만 5000톤 규모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소소르비드를 생산하고 있다.

화학 사업에서는 고기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품군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 글래스 케이스용 고충격 실리콘 폴리카보네이트(Si-PC), IT 통신기기용 내후성소재, AI서버용 고내열·고치수안정 소재 등이 주요 스페셜티 소재로 꼽힌다. 의료 분야에서는 감마선 멸균 후 황변을 줄인 의료용 폴리카보네이트(PC)와 소독

제 내구성을 높인 Si-PC 기반 의료기기 소재를 선보이고 있다.

모빌리티 영역은 전동화 부품 수요와 맞물려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전기차 모터코어용 접착제와 자동차 램프용 고무와 폴리카보네이트, 차량 경량화용 열가소성 폴리에스터 엘라스토머(TPEE) 등이 주요 제품군이다. 전력 효율 향상과 경량화, 내구성 강화 수요가 커지면서 관련 소재 적용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스페셜티 제품군은 특정 산업의 요구에 맞춘 기능성과 기술 경쟁력을 갖춘 소재로, 경쟁 강도가 낮고 수요처가 명확해 높은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며 “삼양그룹이 육성하는 향료와 반도체 소재, 이소소르비드, 고기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도 이러한 특성을 갖춘 제품군”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大·中企 상생협력 우수사례 10건 포상

중기부, 제1차 원원아너스 수여식
기술 국산화·글로벌 진출 성과 발굴
한일하이테크, 77만달러 역수출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앞줄 왼쪽 6번째)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던트 호텔에서 열린 '2026년도 제1차 원원아너스 기념패 수여식'에서 기념패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한일하이테크가 한국가스공사의 도움을 받아 미국, 폴란드에 77만달러 규모의 불베어링을 역수출했다. 해상팜은 롯데지알에스와 손잡고 계약 대비 102% 수매 실적을 냈다. 정부가 대·중소기업 및 공기업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던트 호텔에서 '2026년도 제1차 원원아너스 기념패 수여식'을 열고 상생협력 우수사례 10건에 대해 기념패를 시상했다고 밝혔다.

원원아너스는 대기업·공공기관과 협력 중소기업이 상호 이익을 창출한 사례를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다. 선정 기업에는 기업 홍보 지원, 동반성장평가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에 ▲기술 자립 및 글로벌 진출(4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글로벌 규제 대응(2건) ▲사회적 난제 해결을 통한 판로 확대(4건) 등이 총 10건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가스공사와 한일하이테크가

최고점을 받았다. 가스공사는 경기 평택 시 액화천연가스(LNG) 기지를 'K-에스 트베드'로 제공하고 1억6000만원의 실증비 및 기술 자료를 지원했다.

덕분에 한일하이테크는 162°C에서도 변형이 없는 불베어링 국산화에 성공했다. 원가 30% 절감, 납기 4개월 단축, 77만달러의 역수출 성과도 냈다.

한국남동발전과 성일터빈은 10년에 걸친 공동연구개발(R&D)로 가스터빈 핵심 부품을 국산화했고, 한국중부발전과 위플랫은 인공지능(AI) 기반 누수 탐지 기술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다.

글로벌 규제 대응 부문에선 두산에너빌리티가 케이피씨엠에 상생협력기금 1억

2000만원과 컨설팅을 뒷받침한 사례가 뽑혔다. 케이피씨엠은 제조공정 및 에너지 데이터를 개량한 맞춤형 탄소 산정 모델을 구축했고 대기업과의 거래 규모를 15%나 늘렸다.

롯데지알에스와 해상팜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공급망 위기와 청년농가 판로난이라는 사회적 난제를 풀었다. 롯데지알에스는 해상팜과 시세와 관계없는 전량 수매 보장 계약을 맺고 재배 컨설팅을 지원했다.

해성팜은 이를 이용해 최적화된 고품질 감자 생산으로 계약 대비 102% 수매 실적을 달성했다. 롯데지알에스와 로컬 상생 신메뉴도 함께 출시했다. /김승호 기자 back@

크래프톤, AWS와 AI·클라우드 협력 확대

김창한 대표, 시애틀서 AWS CEO 회동
AI 연구개발·클라우드 인프라 논의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이사(왼쪽)가 미국 시애틀에서 만난 AWS CEO 회동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크래프톤

크래프톤이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 AWS(아마존웹서비스)와 인공지능(AI) 분야 협력 확대에 나섰다.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미국 시애틀에서 맺 가던 AWS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AWS 경영진과 만나 AI 및 클라우드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동에서는 크래프톤의 AI 비전과 함께 클라우드 및 AI 인프라가 게임 개발과 AI 기술 고도화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양측은 AI 연구개발 역량과 클라우드 기술을 결합한 시너지 창출 방안을 중심으로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틱스와 AI·시뮬레이션 기술을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양사는 AI 에이전트와 시뮬레이션 기술이 게임 산업을 넘어 다양한 산업 현장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래프톤은 최근 게임 개발사를 넘어 AI 기술 기업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회사는 자체 AI 연구 조직을 운영하며 AI 캐릭터(CPC)와 게임 특화 AI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국에 AI 로봇틱스 기업 루도 로보틱스를 설립했으며 김 대표가 직접 대표직을 맡고 있다.

AWS 역시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글로벌 최대 클라우드 사업자인 AWS는 기업용 AI 서비스와 대규모 AI 학습·추론 인프라 구축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AI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크래프톤은 게임 산업에서 축적한 AI 기술력을, AWS는 클라우드 및 AI 인프라 역량을 바탕으로 협력 가능성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중소대출 많은 시중은행, 상생노력 첫 평가

동반위, 상생금융지수 시범평가
국민·기업·농협 등 6개 은행 대상

중소기업 대출이 많은 시중은행 6곳에 대한 상생 노력이 점수로 매겨진다.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대상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체감도를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시범평가를 올해 하반기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상생금융지수'는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생 체감도 등을 계량화한 지표로, 지난해 11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이 필요자금의 대부분은 은행에서 조달하는 만큼 금융권의 상생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금융회사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수를 도입한 것이다.

상생금융지수는 ▲상생금융 실적평가(40점) ▲상생협력 실적평가(40점) ▲체감도 조사(20점)와 감점 항목으로 구성된다.

상생금융 실적평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공급과 기술금융, 관계형 금융, 채무조정 등을 평가하며, 상생협력 실적평가는 금융회사의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과 지역 균형성장,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등을 반영한다.

체감도 조사는 대출금리와 수수료 등 대출 조건, 대출 심사 과정에서의 비재무적 평가 반영 노력, 비금융 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다만 사회적 물이나 금융거래·동반성장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은 감점 요인이다.

상생금융 실적평가는 금융감독원이, 상생협력 실적평가와 체감도 조사는 동반위가 각각 담당한다.

/김승호 기자

네이버웹툰, 창작 앱 '컷츠메이크' 선포

웹툰 장면·캐릭터로 슷폼 제작
원작자 승인 IP 9개 작품 참여

네이버웹툰이 웹툰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슷폼 콘텐츠 생태계 확대에 나선다.

네이버웹툰은 24일 원작자 승인을 받은 웹툰 IP를 기반으로 슷폼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는 창작 도구 앱 '컷츠메이크'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컷츠메이크는 네이버웹툰의 슷폼 애니메이션 서비스 '컷츠'와 연동되는 창작 도구다. 이용자는 웹툰 속 장면과 캐릭터를 선택해 손쉽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서비스에 활용되는 모든 IP는 원작자의 승

인을 거쳐 제공돼 저작권 침해 우려 없이 2차 창작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주요 기능은 캐릭터 밈과 '웹툰 MV'다. 캐릭터 밈은 웹툰 캐릭터와 팀플릿을 활용해 슷폼 챌린지 형식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기능이다. 웹툰 MV는 원하는 웹툰 장면을 활용해 뮤직비디오나 애니메이션 오프닝 형태의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비스 출시와 함께 가비지타임, 만남 어플 중독, 역대급 영지 설계사, 연애혁명, 이직로그, 작두, 작전명 순정, 전지적 독자 시점, 해시태그는 첫사랑 등 9개 작품이 참여한다. /최빛나 기자



AI·CLOUD·DATA
연계플랫폼 평생교육원

2026 차세대 AI·디지털 트윈 실무 인재 양성과정 1기

2026년 7월 6일 ~ 2027년 1월 7일



모집 개요

과정명: 차세대 AI·디지털 트윈 실무 인재 양성과정 1기
교육기간: 2026년 7월 6일 - 2027년 1월 7일
교육시간: 월~금, 09:00 ~ 18:00
교육장소: AI-CLOUD-DATA 연계플랫폼 평생교육원
교육원 위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4 메타빌드 제2사옥 4층
상담 문의: 010-5155-8299

지원 자격 및 혜택

학력·전공 무관! 비전공자 및 인문계열도 기초부터 입문 가능
우대 사항: Python, Java 등 프로그래밍 기초 수강생 우대
추천 대상: IT/빅데이터/AI/ITS/데이터엔지니어 직무 취업 희망자
교육비 혜택: 총 수강료 40만원(훈련장려금 매달 수령 가능)

주요 교육 내용

총 1,000시간 중심의 실무 및 프로젝트 교육
 AI 서비스 연계기술(ESB/API/MCP/A2A), Node.js/Express 기반 웹 응용
 Python/JAVA/바이트코딩 기반 데이터 분석, RESTful API 설계
 React 기반 프론트엔드 개발, 데이터베이스 및 GIS 기반 데이터 처리
 생성형 AI·GPT·LLM 실무 교육, 디지털트윈 서비스 구현 등

신청 및 문의

신청방법: 메타빌드 AI·클라우드·데이터 연계플랫폼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신청
 * 산대특 4기 - 홈페이지 신청 (QR코드 연계)



수업과정
상세보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분양시장 '기지개' 수도권·반도체 벨트 핵심입지 입주 기회

지방선거 등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분양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상반기 미뤄졌던 공급 일정이 한꺼번에 집중되면서 전국 분양 물량이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준까지 확대됐다. 특히 수도권과 신도시, 도시개발사업지구 물량이 동시에 시장에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노량진뉴타운과 장위뉴타운 등 핵심 입지에서 신축 공급이 예고됐으며, 최근 몇 년간 신축 공급이 드물었던 성남시 분당구와 세종시에서 아파트가 나온다. 특히 최근 주목을 받은 반도체 벨트에서는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와 오산시에서도 청약이 진행 중이다. 역세권에 위치해 교통과 교육,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 실거주 여건을 모두 갖춘 단지들이 선보이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경우 시세차익을 노려볼 수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금리와 분양가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입지와 상품 경쟁력을 갖춘 신규 공급에 대한 수요는 유지될 것"이라며 "특히 대기 수요가 누적된 수도권과 광역 생활권 중심 단지로 청약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유도이미지

병점역 도보 이용... 삼성 캠퍼스 인접

오산헤리티지자이 GS건설

병점역 중심 입지... 동탄역 연장 호재

GS건설은 경기 오산시 양산동 일원에 들어서는 '오산헤리티지자이'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22개 동 총 1783가구 규모다. 블록별로는 1블록 13개 동 1069가구, 2블록 9개동 714가구 규모다. 전용면적은 75·84·102·124·166(PH)㎡로 구성됐다.

단지는 병점역 일대 약 1만여 세대 규모로 조성 중인 브랜드타운 중심 입지에 들어선다. 수도권 전철 1호선 병점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1호선 동탄역 연장(계획) 및 동탄도시철도(트랩) 추진 등도 예정돼 있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봉담~동탄), 오산화성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을 통해 수도권 및 서울로의 접근성도 용이하다. 또한 삼성전자 화성·기흥캠퍼스를 비롯해 동탄테크노밸리, 가장산업단지 등 주요 산업시설이 인접해 있다.

생활 인프라는 병점역 및 병점복합타운 중심상업지구(루트시네마, 하나로마트, 양산도서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오산세마공원, 화성현충공원, 화산생태공원 등 녹지시설도 풍부하다. 여기에 단지와 인접한 약 1만 평 규모의 체육공원도 조성될 계획이다.

교육환경으로는 양산1초(가칭, 계획) 및 양산중(2027년 개교예정)을 도보로 통학 가능하다. 병점 및 동탄 학원가 접근성



도 좋다.

단지는 남향 위주 배치와 판상형 4베이 중심 구조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드레스룸·엔트리 등 수납 특화 설계로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입주인 커뮤니티센터인 '클럽 자이안'에는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등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입주인 전용 스카이라운지도 들어설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오산헤리티지자이가 들어서는 병점역 일대는 1만여 세대 브랜드타운이 조성되며 경기 남부 신주거타운으로 주목받는 지역"이라며 "단지는 병점역 생활 인프라와 교통 편의성, 개발 호재 등 다양한 이점을 통해 향후 병점역 생활권을 대표하는 신흥 주거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본주택은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에 마련된다.

장위뉴타운 입지...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 대우건설

돌곶이역 역세권... GTX-C 노선 예정

대우건설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원에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을 내놓는다.

단지는 장위뉴타운 10구역에 재개발해 들어서는, 지하 5층~지상 35층, 23개동 총 1931세대로 구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39~114㎡ 1032세대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일반분양 물량의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39㎡A 71세대 ▲39㎡B 26세대 ▲46㎡ 7세대 ▲51㎡A 1세대 ▲51㎡C 5세대 ▲59㎡A 148세대 ▲59㎡B 121세대 ▲59㎡C 54세대 ▲59㎡D 65세대 ▲59㎡E 14세대 ▲74㎡A 57세대 ▲74㎡B 48세대 ▲84㎡A 90세대 ▲84㎡B 251세대 ▲84㎡C 20세대 ▲84㎡D 47세대 ▲101㎡ 5세대 ▲114㎡ 2세대 등이다.

장위뉴타운은 총 123만6798㎡ 면적에 15개 구역으로 나누어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며, 총 3만2000여 세대를 품은 대규모



부산과학산단 등 경남 직주근접 생활

김해 신문 센트럴 아이파크 IPARK현대산업개발

김해관광유통단지 인프라 도보 이용

IPARK현대산업개발은 경남 김해시 장유신문지구 신문동에서 '김해 신문 센트럴 아이파크'를 선보인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3개동, 전용면적 84~128㎡, 총 137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84㎡A 916가구 ▲84㎡B 224가구 ▲113㎡ 191가구 ▲128㎡ 48가구 등이다.

장유신문지구는 약 55만 6270㎡ 규모로 공동주택 2개 단지를 비롯해 단독주택, 초등학교,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곳이다. 지구 북측으로는 신문1지구 개발 진행 중이며, 남측으로는 김해관광유통단지 등이 있어 향후 이 일대가 약 1만 5000여 가구 규모에 이르는 신문새 도시를 형성할 전망이다.

단지는 김해관광유통단지 내에 있는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하나로클럽, 롯데시네마 등 편의·문화시설을 곁에서 이용할 수 있고, 기조성된 장유·울하리구의 생활 인프라 공유도 가능하다.

도보권에 지난해 9월 개교한 신문초가 있으며, 장유중과 울하동학원가도 인접해 있다. 단지 바로 옆으로 조만강이 흐르고 조만강 생태체육공원, 반룡산, 용두산 등도 가깝다. 이와 함께 조만강변을 따라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위치해 단지 가까이서 여가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교통여건은 단지 인근으로 철산로, 용



장로, 장유로 등의 도로망을 통해 김해 도심으로 이동이 수월하고, 서부산으로 연결되는 남해제2고속도로지선 남장유IC, 장유IC도 가까워 부산 및 창원 등의 주요 도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인근으로 부산과학산업단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김해골드루트산업단지,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이지일반산업단지 등의 산업단지가 풍부해 직주근접 주거 생활이 가능하다.

단지는 남향 중심 설계로 채광성과 통풍성을 극대화했다. 단지 내에는 조만강수변까지 그린 동선이 이어지는 1만 4200여㎡ 규모의 파노라마 시그니처필드(중앙광장)가 조성되는 것을 비롯해 3가지 테마로 이뤄진 패밀리 그라운드, 약 520m 길이의 산책로, 리버뷰 가든 등 공원형 아파트로 설계된다. 특히 6200여㎡ 규모의 신문지구 최대 규모의 커뮤니티도 조성된다.

건본주택은 경남 김해시 대정동에 마련된다.

행정도시 배후 수요

세종 우미린 센터파크 우미건설

5-2 생활권 위치... 국가산단 조성 예정

우미건설은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세종 우미린 센터파크'를 분양한다.

세종 우미린 센터파크는 5-2생활권 중심에 자리한 S1블록에 들어선다. 5-2생활권은 학교와 공원, 공공청사, 주거시설이 하나로 어우러지도록 설계된 공공시설 복합단지 특화권역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전용면적 45·59·84㎡, 총 676세대 규모다. 인근에는 초·중학교(예정)와 유치원(계획)을 비롯해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계획돼 있다. 이와 함께 약 3만 7000㎡ 규모의 문화공원이 잔디광장과 커뮤니티스퀘어, 순환형 산책로 등을 갖춘 생활권 중심 광장으로 조성된다.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2029년 착공, 2033년 준공 목표)과 대통령 세종집무실(2027년 착공, 2029년 준공 목표)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두 시설이 들어서면 세종시의 행정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이 한층



서울 출퇴근 편리

주거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1·2호선 환승역인 시청역과 3호선·신분당선 환승역인 신사역까지 30분 내외로 이동할 수 있어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출퇴근이 편리하다. 동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로 등을 통한 차량 이동도 수월하며 동북선 경전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등이 예정되어 있다.

단지 바로 옆에 장위초등학교가 있으며, 반경 약 1.5km 이내에 월곡중, 남대문중, 장위중, 석관고 등 다수의 학교가 위치해 있다. 이와 함께 장위전통시장과 대형마트·백화점, 영화관 등 다양한 생활·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은 장위뉴타운의 핵심 자리에 위치해 교통, 교육, 편의, 자연 등 각종 생활 인프라를 두루 누릴 수 있다”며 “주변의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등 다양한 개발 사업으로 미래가치도 높다”고 전했다.

건본주택은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에 들어선다.



요·CTX 개발 호재

높아지는 만큼 5·2생활권 일대의 배후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통 여건은 단지 가까이 조성 예정인 BRT 정류장을 통해 지역 내 이동이 편리하며, KTX·SRT가 정차하는 오송역과 남청주IC, 외곽순환도로 등 광역 교통 인프라 이용도 수월하다. 또한 대전~세종~청주를 잇는 총연장 64.4km의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가 2028년 착공, 203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단지 인근에는 약 5만㎡ 규모의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포함한 의료복지 중심의 헬스케어타운(계획)이 조성될 예정이며, 연서면 일원에는 약 275만㎡ 규모의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2031년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는 지상에 주차공간을 두지 않아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갖췄다. 커뮤니티 시설은 피트니스 클럽과 실내골프 연습장, 스쿠린골프장 등 다양한 운동시설과 함께 작은도서관과 남녀 구분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건본주택은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일원에 마련된다.



신혼부부 등 933가구 공공분양 공급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 DL이앤씨

신혼희망타운 정책자금 상품 활용 가능

DL이앤씨는 경기 성남 분당구 동원동 일원(성남낙생 A-1BL)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를 분양한다.

단지는 신혼희망타운 자격을 갖춘(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총 14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이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는 장기임대 467가구를 제외한 933가구가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전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공공분양 기준 세부 주택형은 ▲51㎡A타입 274가구 ▲55㎡A타입 348가구 ▲55㎡B타입 134가구 ▲59㎡A타입 167가구 ▲59㎡T타입(테라스형) 10가구 등이다.

신혼희망타운 특성에 맞춰 단지 내에는 2층 구조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확장형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층간소음 저감 설계와 두꺼운 바닥 차음재

적용을 통해 영유아가구의 주거 편의성을 높였다.

단지가 들어서는 성남낙생지구는 향후 약 4400여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는 해당 지구 내 첫 분양 단지다.

입지적으로는 판교테크노밸리와 분당 업무지구와 인접해 있어 직주근접 여건을 갖췄다. 또한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해 차량을 통한 서울 도심 및 광역 이동이 양호하다.

생활 인프라는 차량 기준 약 10~15분 거리에 이마트, 2001아울렛 등 대형 상업 시설은 물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등이 위치해 기존 분당·수지 생활권 인프라를 공유한다.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며, 신혼희망타운 전용 정책자금인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

주택전시관은 경기 성남 분당구 동천동에 마련된다. 입주는 오는 2029년 2월 예정이다.

평택 반도체 벨트 입지... 분상제 적용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현대건설

고덕신도시 산업·생활 인프라 수혜

현대건설은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를 분양한다.

단지는 평택시 고덕국제화지구 A 31·34·35블록에 들어서며, 최고 33층 규모의 3개 블록으로 조성된다. 31블록 690가구, 34블록 679가구, 35블록 753가구 등 총 2122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58·84㎡의 중·소형으로만 구성됐으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단지는 고덕국제신도시 안에서도 산업·행정·주거 기능이 확장되는 지역에 들어선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기반이 형성돼 있으며, 평택시청 신청사 조성과 중심상업지역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힐스테이트고덕엘리스트는 1호선 서정리역과 SRT·1호선 평택지체역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고덕국제신도시를 순환하는 BRT 노선 정류장이 단지 인근에 조성될 예정이며, 수원발 KTX 직결사업도 추진 중이다. GTX-A·C 노선의 평택 연장 계획도 거론되고 있어 향후 광역 교통망 확충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단지 주변에는 고덕8초와 고덕6중이 예정돼 있으며, 송탄고등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한다. 국제학교 신설이 계획된 에듀타운도 인접해 있다. 평택시청 신청사 예정지와 중심상업지역, 상업용지 등이



가까워 향후 생활 인프라 확충도 예상된다. 판매·업무·의료시설 등이 들어설 생활권과 맞닿아 있으며, 합박산 중앙공원도 인접했다.

단지는 4베이(Bay) 위주의 평면과 판상형 중심 설계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을 고려했다. 안방 드레스룸과 현관 팬트리, 일부 세대 알파룸 등 수납공간을 마련했고, 세대별 창고도 제공할 예정이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GX룸,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돌봄센터 등이 블록별로 계획돼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고덕국제신도시 내에서 산업과 생활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입지에 공급되는 단지”라며 “중·소형 중심 구성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생활 편의성을 고려한 설계를 바탕으로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건본주택은 경기 평택시 고덕동 일원에 마련된다.

노량진 학원가 인접... 재개발사업 수혜

드파인 아르티아 SK에코플랜트

7호선 장승배기역 초역세권

SK에코플랜트는 서울 노량진뉴타운에서 노량진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드파인 아르티아’ 분양한다.

드파인 아르티아는 SK에코플랜트가 한강 이남에서 처음으로 단독 시공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아파트다. 동작구 노량진동 일대에 위치하며, 지하 4층~지상 45층 2개동, 전용 59~109㎡ 총 404세대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171세대가 일반 분양된다.

단지 바로 앞에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위치한 초역세권이며, 도보 거리에 지하철 1·9호선이 지나는 노량진역도 위치한다. 시청역, 서울역, 용산역, 여의도역, 고속터미널역, 강남구청역 등 서울 핵심 지역을 환승 없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도보 거리에 노량진초, 영화초를 비롯해 영등포중, 영등포고 등 초·중·고모든 학교가 위치한다. 또 지역 내 명문으로 꼽히는 송의여중, 송의여고 등이 가깝고, 동작도서관과 노량진 학원가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다.

생활 인프라로는 인근에 하나로마트를 비롯해 더현대 서울, 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점, 롯데마트 등 유통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또 보라매병원,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강남성심병원 등 대형 병원과 함께 주

민센터, 동작구청 신청사, 문화복지센터 등 공공기관도 가깝다.

노량진뉴타운은 여의도한강공원과 노들섬이 주변에 자리하고 있어 일부 세대의 경우 한강 조망도 가능하다.

현재 노량진뉴타운 일대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구 동작구청 부지 ▲구 노량진수산시장 부지 ▲수도자재관리센터 부지 등을 주거·교육·업무·상업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 노량진과 여의도, 용산 등을 도로와 보행교로 연결하는 수변복합거점 개발을 진행 중이다.

드파인 아르티아는 45층 초고층 설계로 상층부 대부분의 세대에서는 한강과 남산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외관에 커튼월특과 천정고 2.5m(우물천정 2.6m) 및 각종 프리미엄 마감재를 도입했다.

건본주택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하고 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직주근접 ‘탁월’

엘리프 고덕 센트럴하이 계룡건설 컨소시엄

세대당 1.68대 수준 주차공간 확보

계룡건설 컨소시엄(계룡건설·중흥건설·호반건설)은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 ab-13블록에 있는 ‘엘리프 고덕 센트럴하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9개 동, 총 99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 59·84㎡로 공급된다.

가장 큰 장점은 직주근접이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까지 차로 약 5분 거리다. 이와 함께 고덕국제신도시 일대에는 로데오상권과 전통시장, 코스트코, 뉴코아아울렛 등 기존 생활 인프라가 이미 형성돼 있다.

교통은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 이용이 가능하며, 단지 인근에는 BRT 정류장 조성이 예정돼 있다.

교육 환경으로는 단지 인근에는 유·초·고교 계획돼 있다. 2028년 개교 예정인 고덕3초를 비롯해 민세중, 국제학교(예정), 중앙도서관(예정) 등도 가까이 조성될 예정이다.

합박산 중앙공원과 아홉거리 근린공원, 수변공원 등 녹지 공간이 인접해 있으며, 단지 내에는 산책로와 조명 특화설계를 적용해 낮과 밤 모두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상품 설계는 실거주 중심으로 구성된다. 단지는 전용 59·84㎡로 공급되며, 특히 전용 59㎡는 고덕국제신도시에서 오랜만에 공급된다. 전용 84㎡는 전 타입 4베이(Bay) 구조를 적용했으며, 팬트리와 알파룸, 드레스룸 등 수납 특화설계를 도입해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남향 위주 단지 배치와 세대당 1.68대 수준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분양 관계자는 “최근 분양시장에서는 입지 뿐 아니라 실제 거주 만족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엘리프 고덕 센트럴하이에는 삼성 직주근접과 서정리역세권, 고덕 3단계 생활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데다 희소성 높은 59㎡와 실거주 특화설계까지 갖췄다”고 말했다.

건본주택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에 마련된다.



AI 사이클 종료?... “펀더멘털 훼손 아냐, 상승 추세 여전”

코스피, 이달 기록적 변동성 보여
닛케이·나스닥 대비 2~3배 수준
반도체주 쏠림, 단기 급등세 원인
美 금리인상 노이즈는 주의해야
환율 안정·메모리 실적 확인 필요



ChatGPT에 의해 생성된 '글로벌 긴축 우려가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에 제동을 걸고 있는 모습' 이미지.

하루 몇 차례 종목을 사고파는 주식 단타(단기 매매)에 빠져 있던 자영업자 김승현모(31·가명)씨는 최근 매매에서 손을 놓았다. 김씨는 “요즘 장이 너무 널뛰니까 거래를 포기하고 종일 스마트폰 주식장만 그냥 들여다보고 있다”며 “폭등하면 한없이 기뻐다가 폭락하면 내가 그렇지 뭐”란 생각만 들어 조울증 걸릴 것만 같아 투자를 일단 중단했다”고 했다.

국내 증시가 하루에도 수백포인트씩 폭등락을 반복하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식 시장이 아니라 코인판 같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 걱정이 커진만큼 단기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지만,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 자체가 흔들린 것은 아니며 선택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 코스피 변동성 주요국의 2~3배

코스피는 이달 들어 기록적인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코스피는 사상 처

음 8800을 돌파했지만 이후 3거래일 내리 하락하면서 7400대까지 밀려났다. 9일에는 방향을 틀어 하루 만에 8.18% 폭등했다가 10일 또다시 4.52% 급락하는 등 어지러운 장세가 연출됐다. 12일 하루만 해도 장중 8400선을 탈환했다가 8000선까지 후퇴하는 등 400포인트 수준의 변동 폭을 보였다. 이게 다가 아니다. 지난 22일 9114.55까지 상승했던 코스피는 23일 돌변했다. 오전 한때 9175.45까지 상승했다가 8203.84까지 추락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후 17년여만에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24일에도 8080.99에서 8577.52 사이를 오르내렸다.

최근 코스피의 변동성은 주요국 대표 주가 지수에 비해 크다. 이달 들어 코스피의 하루 평균 등락률 절대값은 약 3.67%대를 기록했다. 일본 닛케이나 나스닥의 2~3배 수준의 변동성을 보였다. 9천피(코스피 9000)까지 가파르게 오름에 따른 피로감과 차익 실현 욕구, AI 과잉 투자 및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등이 겹친 영향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의 반도체주 쏠림과 단기 급등세를 변동성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가 조정은 펀더멘털 훼손이 아닌 만큼, 중기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고 판단한다”면서 “시장 상승의 동력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에 기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는 “다만 투자자들의 매매는 반도체 및 일부 대형주에 대한 포모(FOMO·기회 상실 우려) 현상이 확대되는 양상이어서, 당분간 변동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단일 종목의 등락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에 투자한 이들 사이에서 공포가 번지고 있다. 서울 중구 사는 박모(31)씨는 “뒤늦게 주식 투자를 시작한 만큼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달 초 적금을 깨고 SK하이닉스 레버리지에 들어갔는데 수익률이 -10%대”라며 깊은 한숨을 내뿜었다. 블룸버그는 지난 5월 출시된 한국 반도체주 추종 레버리지 ETF 16종의 자산 규모가 출시 당시 30억달러에서 현재 90억달러 이상으로 불어났다고 전했다. 노무라 증권은 레버리지 ETF가 시장이 1% 움직일 때마다 약 90억달러의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수요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국내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도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국내 신용 거래 용자 잔고는 23일 기준 38조원을 기록 중이다.

◆ 금리 노이즈 경계해야

증권가에서는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이

크게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빅테크의 AI 인프라 투자 계획이 유지되고 있고,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한 메모리 수급 역시 여전히 타이트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인상 노이즈를 경계하라고 조언한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 위치에 따르면 9월 말까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70%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장중 101.44까지 오르며 지난해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두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한국 증시는 실적 장세가 끝난 것이 아니라 금리의 소음에 잠시 가려진 국면”이라며 “외국인 수급 회복의 관건은 환율 안정과 메모리 실적 확인이며, 금리 공포가 잦아들수록 시장의 본류는 다시 AI 병목과 메모리 주도주로 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24일(현지 시간) 실적 발표를 앞둔 마이크로 실적 결과에 따라 반도체의 주도력 강화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 조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시장 눈높이가 낮아졌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단기 급등한 투자심리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노무라 “삼성전자 목표주가 59만원 → 67만원으로”

2분기 예상 영업이익 67조 → 76조
KB증권, SK하이닉스 380만원 제시
하반기 베라 루빈 출시, 최대 수혜 기대

증권가에서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24일 노무라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기존 59만원에서 67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노무라증권은 보고서에서 “삼성전자는 당초 예상보다 낮은 성과급 총당금 비용으로 인해 올해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의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을 기존 전망치인 67조원에서 76조원으로 올린다”며 “원래 2분기에 24조원 규모의 성과급 총당금을 반영했으나 최종 노사 합의 결과 성과급 지급률이 기존 가정치인 12%보다 낮은 10.5%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분기에 상반기 성과급 총당금을 모두 반영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총성과급 총당금 규모를 기존 추정치보다 낮은 19조원으로 추산한다”며 “성과급 비용 부담이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2분기 실적이 기존 전망을 웃돌 것”이라고 예상했다.

삼성전자의 2026~2027년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약 60%로 예측했다.

다만 “비메모리 사업에서는 실적 하락 위험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증권사 중 다우투자증권도 삼성전자의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45만원에서 58만5000원으로 올렸다.

고영민 연구원은 삼성전자에 관한 보고서에서 “주요 고객과의 LTA(장기공급계약)가 마무리 단계로 보이는데, 경쟁사 대비 높은 범용 제품 가격으로 협상된 것

으로 파악된다”고 짚었다. 또한 “HBM4(6세대 고대역폭메모리)가 2분기부터 일부 출하가 시작됐고, 3분기부터 점진적 확대 과정에서 전반적인 ASP(평균판매단가)는 기존 예상보다 견조할 것”이라며 “경쟁사들 가운데 이상적인 이익 흐름이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의 추정치를 기존 89조3980억원에서 93조2650억원으로 4.3% 상향 조정했다.

SK하이닉스의 몸값도 치솟는다.

KB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주를 380만원으로 제시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이날 김동원·이정민·강다현 연구원은 “6월 현재 고객사의 메모리 수요 충족률은 50% 수준에 불과하고, 내년 메모리 시장은 공급부족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신규 공장 증설이 이뤄져도 실제 생산능력은 고대역폭메모리(HBM)에 집중되며 범용 메모리 생산 확대는 제한적으로 가능해 수요 증가를 흡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 플랫폼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플랫폼 전체 원가의 25%에 달하며 차세대 메모리 공급 비중을 확대하는 SK하이닉스의 최대 수혜가 기대된다”고 짚었다. 또 “8월에 예정된 미국 주식 예탁증서(ADR) 상장은 마이크로칩의 밸류에이션(평가치) 격차 축소로 이어져 향후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의 기폭제로 작용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4월 163만원이었던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22일 4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 R) 10배를 적용한 결과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금융 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비율 3.3%p 오른 ‘177.6%’

국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증시 상승에 따른 평가이익 증가 등에 힘입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전 집단이 규제비율을 웃돌아 손실흡수능력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기로 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삼성·현대차·미래에셋·한화·교보·DB·다우유 등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177.6%로 집계됐다. 전년 말(174.3%) 대비 3.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자본적정성 비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통합 자기자본을 통합필요자본으로 나눈 산출한다. 금융당국은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지난해 말 통합자기자본은 212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1조4000억원(24.2%) 증가했다. 증시 활성화에 따른 주식 평가이익 증가와 보험계열사의 자본성 증권(후순위채) 발행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통합필요자본은 119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조5000억원(21.9%) 늘었다. 주식 장부가액 상승에 따른 자산 규모 확대와 해외 금융계열사의 총자산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금감원은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 모두 자본적정성 비율이 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손실흡수능력도 양호한 수준”이라며 “금리·주가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자본적정성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금감원, ‘코스피 10년·코스닥 5년’ 감리주기 단축 검토

기업 부담·감독 역량 고려해
단계적 시행 필요 의견 제시도

금융감독원이 평균 20년에 달하는 상장사 회계 심사·감리 주기를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 코스피 상장사는 10년, 코스닥 상장사는 5년 주기로 감리를 실시하고, 중대한 회계부정이 적발된 기업은 신속히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금감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한국회계학회와 공동으로 회계심사·감리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세미나를 개

〈연구발표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

구분	현재	개선 방향
감리 주기 감리 전담 부서	상장사 평균 20년 2개 부서	코스피 10년, 코스닥 5년 4개 부서 (2개 부서 추가)
감리 수단	임의조사	심사는 임의조사를 유지하되, 감리는 강제 조사수단을 일부 강화
상장폐지로의 연계	감리 결과 연계 미흡	감리 결과를 연계한 신속한 상장폐지 필요

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찬진 금감원장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영 한국회계학회 회장, 금융위원회 관계자 및 학계·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국내 감리 주기가 지나치게 길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10년, 코스닥 상장사는 5년

2025
JIWOO
Production
Presents

Musical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Welcome to the **Hyunam-Dong Bookshop**



2025.03.01 ~ OPENRUN 루미나아트홀

원작 황보름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클레이하우스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연출 박예슬 | 작곡·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손정은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박민서

주최·제작 극단지우 기획 (주)지우컴퍼니 (주)제이엘컬처 협찬 **yes24** 사모계절 티켓문의 **NOLticket** 공연문의 02.332.4902

부산항만공, 시로 크레인 고장 예측... 'K-해양 시벨트' 조성

해수부 AI 응용제품 상용화 사업 선정 27억 투입해 와이어로프 결합 진단 부산항 5개 부두서 현장 실증 추진 항만·조선·국방·문화 AI생태계 구축

부산항만공사의 항만하역장비 안전관리 인공지능(AI) 기술이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실시 중이다. 공사는 또 해양산업의 AI 대전환(AI)을 견인하게 될 'K-해양 인공지능 벨트' 조성 사업도 개시한다고 밝혔다.

24일 공사에 따르면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은 해양수산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된 AI 기반 제품 및 서비스의 신속한 상용화 지원이 목적이다.

구체적 지원 대상은 '항만크레인 와이어로프 안전관리'를 위한 AI 기반 예측진단 및 운영지원 서비스 상용화' 기술이다.

정부 측 지원금 19억 원을 포함해 사업비 총 27억 원이 투입된다. 이달부터 향후 12개월간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공사



와이어로프 진단장비 부착 대상물인 부산항 내 항만크레인장비들.

/뉴시스

는 시제품 제작 및 현장실증 확대 운영 등의 기술 고도화에 나선다.

그간 항만 크레인의 와이어로프 관리는 육안 점검 중심으로 이루어져 내부 결합 식별이나 돌발 고장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해당 기술은 자기신호 기반 진단장치와 AI 연산 기술을 도입해, 이상 징후를 실시간 탐지하고 잔존수명까지 정확히 예측해 내는 게 핵심이다. 또 계속된 데이터와 크레인 운전 조건, 유지보수 이력을 융합해 분석하고, 자동리포트 및 경보기능

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정비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성공적인 기술 상용화를 위해 기술 실증 대상 장비 선정과 부두 운영사 협조 체계 수립 등 현장 인프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동 개발사인 ㈜엔키아가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 기술의 통합운영체계 개발 등 제품화부터 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공사는 부산항 부두운영사 중 참여의향을 회신한 5개 부두를 대상으로 현장 실

증을 추진한다. 또 해당 기술을 먼저 적용한 대형 건설사들의 검증된 데이터를 함께 검토해, 부산항 현장 적용성을 높여 갈 계획이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정부 지원사업 선정이 부산항 현장에 우수한 기술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창업 및 중소기업과의 현장 소통과 기술지원을 강화해, 우리 공사가 해양항만 분야의 AI 기술 국산화를 견인하고,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확산과 성장을 돕는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함께 'K-해양 AI 벨트' 조성에도 본격 착수한다. 양 기관은 지난달 29일 부산시티호텔에서 'K-해양 AI 벨트 조성 전략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부산을 세계적인 해양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부산을 중심으로 국방·항만·조선·국방·문화 등 해양산업 전반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게 골자다. 국내 해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해양 AI 중심 거점을 구축하는 대형 전략프로

젝트다. 이번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해양 AI 벨트 종합계획 수립 ▲국방·항만·조선·문화 4대 분야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선도 사업 발굴 ▲인재·창업·인프라 해양 AI 벨트 종합생태계 조성 전략 기획 등을 추진한다.

송상근 사장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긴밀히 협업해, 부산항을 AI 기반 스마트 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한 백년대계를 성공적으로 수립하겠다"고 했다.

김태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은 "전세계적인 AI 패권 경쟁 시대에 해양산업 역시 기존 방식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전환점에 놓여 있다"며 "부산이 세계적인 해양 인공지능 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착수보고회에는 부산항만공사와, 해수부, 부산광역시, 국가AI전략위원회(지역특별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한민국 해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대기업 CVC, 벤처 '데스밸리' 넘긴다

공정위, 지주회사·CVC 운영 현황 대기업 절반 지주사, 재무건전성 개선

대기업집단 내에서 투명한 지배구조를 상징하는 '지주회사 체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자금난을 겪는 초·중·소기업의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유보자금이 CVC를 통해 벤처생태계로 흘러 들어가며 벤처기업들의 이른바 '데스밸리(Death Valley·창업 후 자금조달 고비)' 극복을 돕는 모험자본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6년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102개 중 절반인 51개 집단이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말(50개)보다 1개 늘어난 수치다. 대명화학, 한국콜마,

오리온, 희성이 지주회사를 보유한 채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고, 삼성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시밀러 분야가 인적분할되면서 삼성에피소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신설해 체제에 변화를 줬다.

지주회사 중심의 구조를 갖춘 '전환집단'은 47개로, 2016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투명한 구조가 장점인 지주회사 체제가 대기업집단들의 선택을 받아 주요 지배구조로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주회사들의 재무건전성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말 기준 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3조 17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89억 원 증가한 반면, 평균 부채비율은 법률상 한도(200%)를 크게 밑도는 39.3%로 전년(43.7%)보다 4.4%p 낮아졌다.

지주회사의 금융업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로 2022년 도입된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2025년 말 기준 일반지

주회사 소속 CVC는 총 13개사로, 이 중 76.9%(10개사)가 제도 도입 이후 신규 설립·등록됐다. 포스코기술투자, 지에스벤처스, 씨제이인베스트먼트, 효성벤처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13개 CVC가 운용 중인 투자조합은 총 85개다. 특히 지난해 신규 설립된 15개 투자조합의 평균 출자약정금액은 263억 원으로, 국내 일반 VC 평균(160억 원)을 64.4%나 웃돌았다. 새 조합에 납입된 투자금(805억 원) 중 65.2%(525억 원)를 대기업집단 내부에서 출자했다. 대기업 내부 유보금이 CVC라는 통로를 통해 벤처 활성화 자금으로 성공적으로 수혈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가장 긍정적인 대목은 투자 자금의 '질'이다. 지난해 CVC가 집행한 전체 벤처투자 규모는 1939억 원으로 전년(2451억 원) 대비 소폭 줄었지만, 당장 자금 수급이 절실한 업력 7년 미만의 초·중기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오히려 눈에 띄게 늘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23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청렴웨이브' 참여기관과 함께 공동 청렴 선언문 낭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부발전

남부발전, 부산 공공기관 청렴경영 선도

부산 공공기관 '청렴라이브' 개최

한국남부발전이 부산지역 공공기관들과 과 손을 잡고 청렴 문화 정착과 윤리·인권 경영 확산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남부발전은 지난 23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층 캠퍼스에서 부산지역 공공기관 윤리경영 협의체인 '청렴웨이브' 참여기관과 함께 '청렴라이브(LIVE)' 행사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렴웨이브 참여기관 임직원들의 청렴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기관 간 윤리경영 협력 기반을 넓히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기관장의 청렴 리더십을 상호 공유하는 한편, 최근 공공부문에서 중

요성이 커진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와 윤리·인권 중심의 조직문화를 지역 공공기관 전반에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본 행사에서는 각 기관 대표들이 청렴의 핵심 가치를 상징하는 꽃을 함께 꽂아 하나의 꽃바구니를 완성하는 '청렴 꽃 피우기' 퍼포먼스가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참가기관들은 이어 진행된 공동 청렴선언문을 통해 정직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다졌으며, 청렴 특강과 판소리 공연 등 문화 콘텐트를 접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청렴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종=한용수 기자

KIAT "동남권, 글로벌 첨단제조 거점 도약"

부산서 5극3특 전략포럼 개최 부산·울산·경남 성장엔진 육성 논의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부인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을 글로벌 첨단제조 거점으로 육성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지난 23일 부산 국립해양박물관에서 동남권의 미래 성장엔진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5극3특 성장엔진 전략포럼(동남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5극3특은 수도권·중부권·대경권·동남권·서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아우르는 국가 균형발전 체계를 뜻한다.

이번 포럼은 동남권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유한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첨단제조 성장엔진 육성방안을 발굴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산업통상부를 비롯해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지자체 관계자와 산업연구원, 지역정책학회, 지역발전연구원, 지역 앵커기업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산업 현장에서 지역 기업들이 부딪히는 애로사항, 기존 산업과 성장엔진의 차별점, 세계적 수준의 첨단산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지난 23일 부산 국립해양박물관에서 5극3특 성장엔진 전략포럼(동남권)을 개최했다.

/KIAT

육성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KIAT 변동철 지역혁신부원장은 "지역의 산업 역량을 결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균형성장을 이끄는 핵심 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도로공사, 주택편입 후 남은 마당·화단 보상

권익위 의견표명 적극 수용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편입된 후 남은 마당과 화단이 공부상 지목이 다르더라도 실제 대지로 이용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러한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을 적극 수용해 민원인과 손실보상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주택과 대지만 편입되고 마당·화단만 잔여지로 남은 민원인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잔여지를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편입 토지와 지

목·지반이 다르다는 이유로 A씨의 잔여지 매수 청구를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 결과, A씨는 1992년부터 해당 토지를 주택 마당과 화단으로 일체하게 사용해 왔음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소유자의 동일성, 지반의 연속성, 용도의 일체성 측면에서 이를 '일단의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을 적극 수용하기로 결정 하였으며, 민원인 A씨에게 잔여지 매수 결정을 안내하고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주말 배송·퀵커머스 확산... 유통업계 생존 전략은 '속도'

주 7일, 시간 지정 배송 등 선배 3자 물류, 도심 물류거점 활용 배송속도·인프라 효율화 핵심 전략

유통업계가 주말·당일 배송 확대와 물류 인프라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온라인 시장 성장 둔화 속에서 배송 서비스가 고객 확보와 충성도 제고를 위한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면서, 유통업체들은 주 7일 배송과 시간 지정 배송 등 서비스를 세분화하는 한편 3자 물류(3PL) 활용을 확대하며 물류 효율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24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유통업계가 확대하고 있는 주말·당일 배송 서비스는 실제 주문 증가와 거래액 확대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배송 역량이 곧 경쟁력으로 직결 되는 이커머스 업계는 주말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후 실제 성과를 봤다. G마켓이 올해 상반기 데이터 분석 결과, 도착보장 서비스인 '스타배송'의 토·일요일 주문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다. 주중에는



서울의 한 택배센터 모습.

대량으로 묶음 상품을 구매하고, 주말에는 과자나 기능성 음료 등 당장 필요한 상품을 사는 소비자들의 쇼핑 패턴을 물류 서비스로 공략한 결과다.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지그재그 역시 평일에만 운영하던 '직진배송'을 주말

까지 확대한 이후, 올해 1~5월 주말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신장하며 요일별 매출 편차를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홈쇼핑 업계 또한 물류 고도화에 나섰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은 CJ대한통운과 협업해 방송 종료 직후 서울 전역에 1~5

시간 내로 상품을 전달하는 '지금 퀵' 서비스를 도입, 퀵커머스 경쟁에 본격적으로 합류했다. CJ온스타일 또한 정오까지 주문 시 당일 받을 수 있는 '오늘도착' 서비스를 비롯해 새벽·내일·일요일 도착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3분기 이내에 '오늘도착' 주문 마감 시간을 오후 3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유통업계의 물류 고도화 전략은 자체 물류센터 구축에서 3자 물류(3PL) 활용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동시에 퀵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도심형 물류거점(MFC)으로 활용해 소비자와의 물리적 거리를 줄이는 방식도 확산되는 추세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자체 물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대규모 물류센터를 선제적으로 확보한 쿠팡은 2022년 3분기에 처음으로 분기 흑자를 기록했으며, 쿨리 역시 업력 10년 만인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했던 셈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주요 택배사들이 주 7일 배송 체계를 확대하고 3PL 사업을 강화하면서 유통업체들은 직접 물류망을 구축하지 않고도 고도화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는 지난해, 롯데택배는 올해 1월 주 7일 배송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에 유통업계 전반에서 자체 물류센터 투자보다 외부 물류 역량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물류 전략이 재편되고 있다.

안도현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2025년 이후로 택배사들이 주 7일 배송 서비스를 앞다퉈 개시중"이라며 "온라인 유통 시장 성장이 둔화되며 점유율 경쟁이 심화되었는데, 주 7일 배송은 점유율 확장성 측면에서 핵심이 되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인프라 투자와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물류 서비스가 향후 이커머스 및 유통 시장의 생존을 가르는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고물가 부담에 '프리미엄 RMR' 시장 뜬다

(레스토랑 간편식)

국내 HMR 시장, 6.8조로 성장 유명 맛집 메뉴, 셰프 IP 앞세워

#. 배달앱을 켜고 치킨 한 마리에 사이드 메뉴, 배달비까지 더하니 어느새 3만5000원. 직장인 A(39)씨는 앱을 닫고 냉장고에서 1+1 행사때 구매한 냉동 순살치킨을 꺼냈다.



소바바 브랜드 제품 라인업.

/CJ제일제당

고물가와 배달비 부담에 지친 소비자들이 배달앱을 끄고 냉동실을 열고 있다. 과거 '대중 때우는 가성비 한 끼'의 대명사였던 가정간편식(HMR)이 유명 맛집의 맛과 감성을 그대로 옮겨온 '프리미엄 미식 RMR'로 진화하면서 외식을 빠르게 대체하는 중이다. 집밥이 절약의 수단을 넘어 전문점 수준의 미식을 즐기는 '홈 다이닝'이라는 새로운 문화로 재정의되고 있는 것.

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국내 HMR 시장 규모는 2017년 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8000억원 수준으로 두 배나 커졌으며, 올해는 7조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양적 성장 뒤에는 단순한 양 확대를 넘어선 '질적 구조 재편'이 자리 잡고 있다.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국내 간편식 시장에서 냉동 제품의 비중은 2022년 52%에서 2023년 56%, 2024년 58%로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최소한으로 가공된 냉동 식품이 영양, 맛, 보관 그리고 환경 측면에서 더 낫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 고도화로 원물의 식감과 풍미를 고스란히 보존할 수 있게 되면서 유명 식당의 메뉴를 온전히 구현해야 하는 RMR 제품 대부분이 냉동 유통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처럼 소비 기조가 '외식의 내식화'로 굳어지자 식품 대기업들은 기존 간편식 브랜드의 서브 라인에 머물던 제품들을 독립적인 프리미엄 전문 브랜드로 격상시키며 고부가가치 시장 선전에 나섰다.

CJ제일제당은 최근 메가 히트 상품이었던 '소바바 치킨'을 기존 '고메' 브랜드에서 분리해 독립적인 치킨 전문 브랜드 '소바바'로 전격 출범시켰다. 외식이나 배달로만 소비되던 후라이드·배달 치킨 수요를 내식 시장으로 완전히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성장세가 가파른 국내 딤섬 시장을 겨냥해 정지선 셰프를 앞세운 프리미엄 '고메 딤섬' 라인업을 확장하는 등 외식 전문점 수준의 고품질 카페 고리를 구축하고 있다.

히립 역시 프리미엄 국물요리 라인업의 패키지를 스탠딩 파우치 형태로 효율화하고 영하 35도 급속 냉동 기술을 앞세워 'The 미식(더미식)' 브랜드를 통한 프리미엄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

신세계푸드는 최근 외식 삼계탕 한 그릇 가격이 2만원에 육박하자, 전문점 수준의 맛을 구현한 '올빈' 삼계탕 간편식 라인업을 다변화하며 보양식 수요까지 흡수하고 있다. 실제 이들의 보양 간편식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급증하며 고물가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렸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한 곳 아이템' 뜬다... 주얼리·모자 판매 ↑

CJ온스타일, 전년비 110% 이상 증가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면서 주얼리와 모자 등 패션 잡화가 스타일링을 완성하는 '한 곳'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CJ온스타일은 올여름 주얼리와 모자 등 패션 잡화 수요가 크게 늘어나며 이른바 '한 곳 패션'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실제 6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CJ온

스타일의 주얼리 주문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했으며, 모자·두건류 주문량은 114%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패션 카테고리 전체 주문량 증가율을 웃도는 수준이다.

회사 측은 여름철 반팔, 반바지, 원피스 등 비교적 단순한 스타일의 의류 착용이 늘어나면서 패션에 포인트를 더하는 잡화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주얼리 가운데서는 목걸이 주문량이 전년 대비 439%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

였다. 이탈리아 비첸자 지역의 장인 기술을 내세운 '비첸자 주얼리'는 해당 기간 목걸이 주문액 8억 원을 기록했다. 퍼스널 라이징 주얼리 브랜드 미스그린의 '트리플 로우 목걸이'는 이달 16일 론칭 방송에서 준비 물량이 모두 판매됐다.

모자와 선글라스도 스타일링과 자외선 차단 기능을 동시에 갖춘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지스튜디오 썬머 버킷햇'은 통기성을 높인 코베를 조직을 적용했으며, '바니스뉴욕 폴더티트 아이웨어'는 접이식 구조로 휴대성을 강화했다.

/김서현 기자

대상, 장애예술인 표준사업장 투자 확대

올모 평택 사업장 참여

발달장애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간기업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대상은 문화예술 특화 장애인 표준사업장 '올모(OLMO)'에 여섯 번째 지분 투자를 진행하며 장애예술인 고용 기반 확대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올모(Open Leap Master Overcome)는 미술 분야에 재능을 가진 장애예술인을 채용해 교육과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예술 전문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다. 기업들의 지분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현재 전국 8개 사업장에서 390명의 작가가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작된 작품은 1700여 점에 이른다.

대상은 기존 부천, 하남, 용인, 인천, 남서울 사업장에 이어 이번 평택 사업장까지 총 6곳에 참여하며 장애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모델 구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러한 참여를 통해 장애예술인 고

용 효과를 인정받아 올해 6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100% 달성했다. 내년부터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상시 근로자 수 대비 3.3%로 상향되는 만큼 직접고용과 연계고용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새롭게 문을 연 올모 평택은 전용면적 약 110평 규모로 공동·개인 작업실을 비롯해 사무실과 휴게실 등 다양한 창작 공간을 갖췄다. 이곳에서는 51명의 발달장애인 작가가 활동할 예정이다. 특히 평택은 지역 내 장애인 인구 중 발달장애인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창빈 대상 경영안전본부장은 "재능 있는 장애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및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존중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비이커, 발란사와 2026 협업 컬렉션 출시

'즐거는 스포츠' 트렌드 반영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편집숍 플랫폼 비이커가 사운드스랩 브랜드 발란사와 협업한 2026년 컬렉션을 선보였다.

비이커는 발란사와 함께 일상 속 스포츠의 즐거움을 담은 협업 컬렉션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컬렉션은 최근 기록과 경쟁보다 즐거운 움직임과 건강한 취미, 스포츠 응원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기획됐다. 비이커는 이를 통해 스포츠를 즐기고 응원하는 문화를 제안한다는 설명이다.

비이커와 발란사의 협업 컬렉션은 '아마추어 스포츠(Amateur Sports)'를 콘셉트로 구성됐다.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비이커x발란사 협업 컬렉션 팝업 스토어의 모습. /삼성물산

스, 복싱 등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스포츠를 그래픽으로 표현했으며, 티셔츠를 비롯해 모자, 반다나, 스포츠 타월, 물통 등 다양한 상품을 출시했다. /김서현 기자

신선식품 자리에 국자·냄비 뿐... 홈플러스 정상화 '안갯속'

Q 르포 경영난 직격탄 맞은 홈플러스

채소·달걀 대신 주방용품 진열
계산대 15곳 중 실제 운영 1곳뿐
입점 소상공인 매출 20~30% ↓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홈플러스 매장의 외관.

경기도 파주에 한 홈플러스 매장. 멀리서도 시계탑 달린 커다란 5층 건물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 지점은 2016년 개점 당시, 지역 최대 규모의 복합 쇼핑몰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화려하게 문을 열었다. 주말이면 가족 단위 방문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지역 상권의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10년이 흐른 현재, 건물의 상징이었던 시계탑은 멈춰 섰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현저히 줄었다.

지난 22일 오전 11시,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1층 한 쪽 덩그러니 비어 있는 공간이 눈에 띄었다. '지금까지 없던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홈플러스의 슬로건이 무색하게, 현장에서 마주한 모습은 깊어지는 경영난을 고스란히 노출시켰다.

◆상추·달걀 자리에 '냄비와 국자'

홈플러스가 오프라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메가푸드마켓' 식품관. 신선도가 생명인 달걀, 채소, 셀러드 등이 진열되어 있어야 할 신선 코너 냉장 매대에 뜬금없이 주방용품과 국자, 도마 등 식기류들이 즐지어 진열돼 있었다. '텅 빈 매장'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매대를 채우려 애쓴 현장의 간절함과 처절함이 묻어났다. 인근에 거주한다는 방문객 A씨는 "한달만에 왔는데 신선실에 냄비와 국자가 진열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제품의 다양성도 크게 후퇴했다. 밀키트 코너는 홈플러스의 자체 브랜드(PB)인 '심플러스(simplus)'와 '홈밀(home meal)' 제품으로만 빼곡했다. 음료 코너 냉장고에도 심플러스의 1000원 아메리카노와 복숭아 음료만 한 줄로 진열돼 있었다. 일반 라면 코너에는 특정 몇 가지 제품만 매대를 간신히 채우고 있었다. 30대 주부 B씨는 "집이 가까워 자주 왔었는데 요즘은 살 게 없어 발걸이 뜬해졌다"며 "가격 메리트는 있지만, 구하기 힘든 상품도 아니고 '불닭볶음면' 같은 대중적인 라면조차 없다"고 아쉬워했다.

밀리(즉석식품) 코너는 6900원 치킨만 이 빈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홈플러스의



신선 식품 코너에 국자, 도마 등 식기류가 진열된 모습.

/김수정 기자

대표 상품인 '당당치킨'이다. 현장의 밀리 코너 직원은 "다른 제품은 만들어 진열해도 잘 나가지 않지만, 치킨은 찾는 손님이 꽤 있어서 요새는 치킨 한 종류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 켜진 계산대는 단 1곳

총 15개에 달하는 메가푸드마켓의 계산대 중 실제로 불이 켜져 있고 직원이 상주하는 곳은 단 한 곳뿐이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대부분의 고객을 키오스크(셀프 계산대)로 유도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오래 근무했다는 직원 C씨는 "예전에 비해 손님이 줄었다"며 "평일 낮에는 한산하지만 저녁이나 주말은 상황이 조금 낫다"고 전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6~7월 영업 정상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것은 들었다.

아직 지점 차원에서 확실하게 내려온 지침이나 계획은 없다"며 "상황이 조속히 좋아지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건물 곳곳에 영업을 중단한 매장들도 있었다. 홈플러스 물 1층 식당가 내부에 리뉴얼 준비 중인 매장 두 곳은 오픈 예정일이 언제인지조차 적혀 있지 않았다.

◆입점 업체, 매출 걱정에서 시름

한때 대형마트의 큰 경쟁력이었던 '윈스톱' 쇼핑 환경의 메리트도 사라졌다. 그간 홈플러스는 마트 내에 다양한 입점업체를 유치함으로써 집객 효과를 최대화했다. 입점업체 또한 마트 고객을 점포에 유치함으로써 윈-윈(Win-Win) 효과를 얻었다. 홈플러스의 상황이 악화하면서 입점업체들 또한 큰 어려움에 빠졌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3000여 곳의 입점

업체 중 60~70%가 소상공인이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기업 회생 신청 이후 최소 20~30%까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트의 경영난이 고스란히 입점 소상공인들의 생존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며 소상공인들의 생계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여전히 자금난 '안갯속'

홈플러스의 현장 정상화 노력 뒤에는 여전히 심각한 자금난이 자리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7일 하림그룹 계열사 NS쇼핑과 슈퍼마켓 사업 부문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를 1206억원에 매각하는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메리츠증권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MBK는 메리츠에 추가 자금 지원을 요구하면서도 최대주주로서 최소한의 보증 제공은 거부하고 있다"며 MBK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홈플러스 또한 메리츠증권을 향해 2000억원 규모 DIP의 신속한 집행을 거듭 요청했다. 홈플러스 측은 "회생에 필요한 유동성이 확보된다면 홈플러스는 충분히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줄을 켜 이해관계자들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애가 타는 건 결국 현장의 직원과 고객이다. 당장 생계가 걸린 직원들의 고용 불안과 마트를 이용하던 소비자들의 불편이언제쯤 해소될까./김수정 수습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metro

여름철 성난 피부... 약국 피부관리템 '주목'

계약업계 피부관리 제품 잇단 출시
트러블 진정 넘어 흉터·재생까지

여름철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 피부 고민도 심화되는 시기다. 강한 자외선, 땀, 노폐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기 쉽고 피지 분비 증가와 모공 막힘은 여드름을 유발하기도 한다.

24일 국내 유통 업계에 따르면, 최근 다양한 헬스케어 브랜드들이 약국을 통해 피부 개선 제품을 내놓고 있다. 특히 각종 피부 트러블을 초기에 관리할 뿐 아니라 흉터 치료, 피부 재생까지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라이온코리아의 '페어아크네 크림'은 일반의약품으로 여드름과 뾰루지에 모두 사용 가능하다. 여드름 부위의 염증을 완화하는 이부프로펜과 코코닐 성분, 여드름

원인균 아크네균에 대한 항균 효과를 갖춘 이소프로필메틸페놀 성분 등을 처방했다. 스테로이드 성분은 포함하지 않아 얼굴 뿐 아니라 등이나 가슴에 생긴 여드름에도 활용할 수 있다.

1일 수회 비누 등으로 세안한 뒤 적당량을 환부에 바르면 된다. 화장한 상태에서도 덧바를 수 있어 필요에 따라 일상 중 수시로 피부 트러블을 관리해 준다.

라이온코리아 관계자는 "페어아크네 크림은 고분자겔 카보머호모폴리머 성분이 첨가돼 화장한 상태에서도 밀리지 않는 제형을 구현한 제품"이라며 "다만 개인의 피부 상태와 여드름 염증 정도에 따라 개선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약사와 상담 후 구매 및 사용하길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트러블 진정만큼 흉터 관리와 회복도

중요하다. 동아제약 '노스카나겔'의 경우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여드름 흉터 치료제다. 헤파리나트륨, 알란토인, 텍스판테네 등을 3중으로 복합한 것이 특징이다. 피부를 습윤하게 해 흉터를 재생시킨다. 그냥 두면 질어질 수 있는 여드름 흉터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동아제약의 '멜라토닝크림'은 색소 침착에 접근하는 일반의약품이다. 피부 색소 침착의 주된 원인은 자외선으로, 햇빛에 노출되면 멜라닌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멜라닌 색소가 생성된다.

멜라토닝크림은 히드로퀴논 성분을 2% 함유하는데, 이 성분은 멜라닌 색소 생성을 촉진하는 효소인 타이로시나아제를 억제해 멜라닌 과다 생성을 방지한다.

/이청하 기자 mlee236@

JW중외제약, 헴리브라 실사용 데이터 공개

'헤븐-세븐 심포지엄' 개최

JW중외제약이 의료진과의 학술 교류를 통해 '헴리브라(성분명 에미시주담)' 치료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헴리브라는 A형 혈우병 치료제로 출혈 예방뿐 아니라 신체 활동, 관절 건강, 삶의 질 개선까지 환자 중심 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쓰인다.

JW중외제약은 지난 13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웨스틴 조선 파르나스에서 '헤븐-세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헴리브라는 A형 혈우병 환자에게 결핍된 혈액응고 제8인자의 기능을 모방하도록 설계된 이중 특이 항체다. 최대 4주 1회 피하주사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서는 2019년 허가받은 후 2023년에는 만 1세 이상 비항체 환자까지 건강보험 급여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JW중외제약은 지난 13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웨스틴 조선 파르나스에서 '헤븐-세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JW중외제약과 국내 혈우병 치료 의료진은 헴리브라 안전성과 실사용 데이터(RWD)를 공유했다.

강동경희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박영실 교수는 '글로벌 데이터와 국내 RWD로 확인한 안전성 근거'를 주제로 강연했다. 박 교수는 글로벌 출시 이후 10년간 축적된 2만4000명 이상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청하 기자

메디톡스, '아띠에르' 중남미 진출

도미니카공화국 품목허가 획득

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가 글로벌 필러 시장에서 브랜드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메디톡스는 도미니카공화국 의약품식품건강제품총국에서 히알루론산 필러 '아띠에르' 3종에 대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아띠에르'는 메디톡스의 독자 기술을 집약해 탄성과 점성의 조화를 최적화한

것이 특징이다. 제조 과정에서 동물성 배지와 효소는 배제해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을 낮추는 등 고품질을 갖췄다.

이번 품목허가로 메디톡스는 중남미 지역을 공략하기 위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 구축하게 됐다. 2017년부터 도미니카공화국에서 브랜드 입지를 다져온 기존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에 이어 '아띠에르' 클래식, 인텐시브, 볼륨 등 3종을 내놓는다. 또 차세대 독신 제제 '뉴릭스'와의 결합효과도 극대화해 현지 시장에서



'아띠에르' 3종 /메디톡스

브랜드 점유율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메디톡스는 2024년 6월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태국에서도 '아띠에르' 품목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이청하 기자

셀트리온제약,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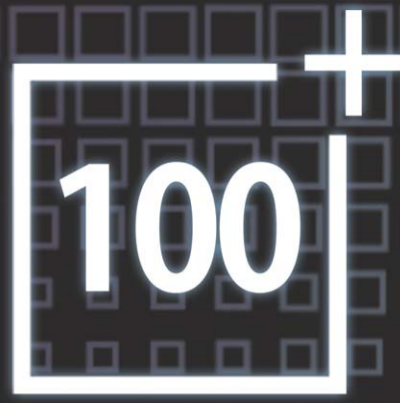
혁신·연구개발 등 중대 이슈로 선정

셀트리온제약이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를 담은 첫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2025-2026'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셀트리온제약은 이번 첫 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사업 성과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활동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공시 기준, 산업 특화 지표, 동종사 및 선도사 벤치마킹, 내부 경영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도출한 10개 우선 순위 이슈를 다룬다. 각 이슈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과 기업 활동이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평가했다. 특히 혁신 및 연구개발, 제품 품질 및 안전, 사업장 안전보건을 최중대 이슈로 선정했다.

/이청하 기자



인공지능 (AI) 시대, 자산관리 전략도 달라져야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2026년 7월 9일(목) 오후2시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행사개요

- 행사명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 주제 인공지능(AI)시대, 자산관리 전략도 달라져야
- 일시 2026년 7월 9일(목)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 장소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주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등록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문의 2026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 2시 30분 이후에는 행사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선착순 100명, 택1)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15	<축사>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5~14:50	송홍선 자본시장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AI와 자본시장, 기회와 위험
강연	14:50~15:20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
	15:20~15:50	최종진 한국투자증권 연금혁신본부 본부장
	15:50~16:20	정재훈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조교수
	16:20~16:50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중진공-LG엔솔, K-배터리 생태계 강화 ‘맞손’
24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열린 대전 유성구에 있는 LG에너지솔루션 대전기술원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K-배터리 생태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진공 반정식 지역혁신이사(오른쪽)가 LG에너지솔루션 김제영 CTO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LG생활건강, 한강공원에서 ‘그린 시네마 피크닉’
LG생활건강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서울국제환경영화제의 단편 모음집을 상영하는 ‘그린 시네마 피크닉’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LG생활건강의 클린뷰티 브랜드 ‘비온드’와 환경 전문 공익재단 ‘환경재단’이 협업한 것으로 영화 상영과 함께 자원 순환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LG생활건강



동아오츠카, 前 국가대표와 함께 축구팀 응원
동아오츠카는 25일 서울 용곡중학교에서 ‘포카리스웨트와 함께하는 FUTSAL HEROES 2026’ 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쿨어택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 축구 국가대표 김영광, 이범영과 축구선수 출신 코미디언 송하빈이 참석해 학생들과 국가대표팀 경기를 관람하고 ‘포카리스웨트 축구 챌린지’에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동아오츠카



클라우드-롯데디자인츠, ‘팬사랑 페스티벌’
롯데칠성음료는 오는 28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리는 롯데디자인츠와 LG 트윈스의 경기와 연계해 ‘팬사랑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사는 경기 당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야구장 중앙광장에서 진행되는 장외 프로그램과 경기 중 관람객 참여형 장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롯데칠성음료



우리은행, 서울시 청년 경제·금융교육 지원
우리은행은 서울특별시와 협업을 서울 청년들의 경제 및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서울 영테크’와 연계해 추진됐다. 오지영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오른쪽)과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소아암 환아에 꿈을”... SK이노, 키자니아 체험 지원

백혈병어린이재단과 진행 환아·가족 400여명 등 참여 또래와 사회적 교류 기회도

SK이노베이션이 백혈병·소아암 환아와 가족들을 위한 직업 체험 자리를 마련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키자니아 서울에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함께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2026 키자니아 체험’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장기간 치료로 다양한 사회 경험 기회가 제한된 백혈병·소아암 환아들이 직업 체험을 통해 미래의 꿈을 키우고 긍정적인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감염 관리가 중요한 환아들을 고려해 키자니아 전체를 대관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운영했다. 체험에는 환아와 가족 400여명을 비



23일 SK이노베이션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이 진행한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2026 키자니아 체험’에서 SK이노베이션 자원봉사자가 참가 어린이와 직업 체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롯해 SK이노베이션 구성원 자원봉사자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아이들은 소방관, 경찰관, 승무원, 요리사, 연구원 등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며 진로와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 활동에 참

여하며 장기간 치료 과정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사회적 교류의 기회도 경험했다.

SK이노베이션 자원봉사자들은 환아들의 이동과 체험 활동을 지원했다. 도움이 필요한 일부 환아들에게는 1대 1 지원을 제공했으며 타투 스티커, 레

고 키링 만들기, 키캡 만들기 등 체험 부스도 운영했다. 한 보호자는 “아이가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며 가족 모두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구성원들이 기본급의 1%를 자발적으로 기부해 조성한 ‘1% 행복나눔기금’을 통해 19년째 백혈병·소아암 환아 치료비 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약 67억원을 지원해 난치병 아동 700명의 치료를 도왔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아이들이 직업 체험을 통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우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현대차그룹, 글로벌 리더 키운다

‘2026 해피무브’ 발대식 열어 봉사·문화교류·해외사업장 견학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도 우리 미래세대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간다.

현대차그룹은 24일 서울 서초구 현대차·기아 양재 사옥에서 ‘2026 해피무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피무브는 대학생들이 해외 봉사활동과 문화 교류를 통해 미래 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08년 이후 현재까지 1만3000여명이 참여했다.

올해 해피무브는 해외 봉사활동·문화교류·현대차그룹 해외 사업장 견학 활동이 이뤄진다. 선발된 인원은 7~8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으로 파견된다.

인도네시아 파견단은 비정부기구(NGO) 해비타트·국제구조플랜과 취약계층 주택 신축·학교시설 보수·폐기물·재활용 교육에 나선다. 베트남 파견단은 NGO 월드비전과 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STEAM) 교육·학교도서관 신축·벽화조성 봉사 활동을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울진 산불 피해지역 및 진천 미호강 단체 봉사 ▲국내 및 싱가포르·스위스 친환경 랜드마크 탐방 ▲국제기구 IUCN 등과 연계한 환경전문가 특강 ▲현대자동차그룹 신규 CSR 아이디어 기획 등을 수행했다.

성 김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사장은 “현장에서 나눔의 가치를 배우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기아 ‘PV5’,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도움

지체장애인협회와 이동권 제고 ‘맞손’

기아가 단순 이동 수단을 넘어 ‘목적 기반 차량(이하 PBV)’으로 출시한 신개념 모빌리티 PV5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

기아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기아 중형 전기 PBV ‘PV5 WAV’로 교통약자 이동권을 제고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PV5WAV는 기아 브랜드 첫 전용 PBV인 PV5에서 파생된 모델로 휠체어 이용자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측면 출입 방식이 적용됐다. 차도에서 이뤄지던 기존 후면 탑승 방식 대비 인도에서 승하차가 가능해 이용 안전성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협약에 따라 기아는 협회에 PV5 W



기아 PV5 WAV.

AV 차량 1대를 기부하고 협회 소속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PV5 WAV 또는 패시저 모델 구매 시 대당 5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기아는 협회 개인 회원 및 단체를 대상으로 PV5WAV 시승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하반기 개최 예정인 ‘국체장애인파크골프대회’, ‘전국지체장애인 체육대회’ 등 대규모 행사와 연계하여 PV5 WAV 부스 운영 및 차량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가전 AS ‘업계 최고’

‘국가서비스대상’서 대상 선정

삼성전자서비스가 가전 애프터서비스(AS) 부문에서 2년 연속 업계 최고로 평가받았다. 국가서비스대상에 이어 한국서비스품질지수에서도 가전·컴퓨터·휴대전화·에어컨 전 부문 1위를 지키며 ‘AS 강자’ 입지를 굳혔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산업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6 국가서비스대상(NSA)’에서 가전 AS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국가서비스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후원하는 평가 제도로, 산업계 전문가와 학계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부문별 우수 기업을 선발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서비스 가치와 고객 만족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전 AS 부문 최고 기업에 올랐다.

특히 고객 수요 변화에 맞춘 차별화 서비스로 산업 발전을 선도한 점이 호평받았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가전 구독



삼성전자서비스 엔지니어가 구독 고객에게 블루패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
/삼성전자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블루패스’ 서비스를 도입해 ‘AI 사전 케어 알림’과 ‘하나더 서비스’ 등 맞춤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AI 사전 케어 알림’은 스마트싱스(SmartThings)에 연결된 제품 상태를 AI로 분석해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고객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다. 전문 상담사가 진단 내용 안내부터 출장서비스 접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대상 제품도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로봇청소기 등 11개로 확대해 24개 증상에 대한 사전 알림을 제공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LS일렉트릭, 전역 장병 채용 확대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 운영 취업박람회서 직무상담 등 진행

LS일렉트릭이 제대군인 채용 확대에 나서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인재들의 사회 정착 지원과 우수 인재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LS일렉트릭은 국군 장병과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전 직군 채용을 확대하는 인사(HR)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계급장년 등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사회로 복귀하는 중·장기 복무 장병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나

서고 있다.

최근에는 예비군 참모 채용을 위해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로부터 전역 장병을 추천받아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등 제대군인 채용 확대를 본격화했다. 일반 사병에 대해서도 현장직 채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전역 예정 장병들의 사회 진출 지원에도 힘을 싣고 있다. LS일렉트릭은 올해 국방부와 유관 기관이 주관하는 취업박람회에 잇달아 참가하며 전역 예정 장병을 대상으로 채용 정보 제공과 직무 상담을 진행했다.

/원관희 기자

◆ 인사 ◆ **삼성KPMG** ◇ 부회장 승진 △윤학섭 ◇ 부대표 승진 △강인혜 △김성배 △박근우 △박영걸 △손호진 △신동준 △이상길 △이성욱 △진형석 △차오 리아(Cao, Leah) △현승민
◆ **한국도로교통공단** ◇ 본부장 △감사실장 선치성 △ AICT디지털본부장 이민정

◆ **부음** ▲ 조미자(향년 84세)씨 별세, 박재형(투데이e코노믹 대표)·박홍진씨 부친상, 우혜진·김은수씨 시모상 = 24일 오전 8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26일 오전 9시 20분, 장지 벚재 용미리 1묘지. 02-2227-7500

5등급제 전환에 막힌 N수생 수시



지 상 범의
입시 토크

2028학년도 대학입시 제도는 대한민국 대입 역사상 파괴적인 변곡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고교 내신 체제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전환되는 첫해인 만큼 당초 교육계 이목은 내신 변별력 약화와 대학별 고사 부활 여부에 쏠려 있었다. 그러나 정작 대학들이 내놓은 시행계획안이 마주한 첫 번째 균열은 전혀 엉뚱한 곳에서 터져 나왔다. 바로 'N수생에 대한 수시 진입장벽의 전면적 통제'다. 서울 주요 대학이 일제히 졸업생의 수시 지원 자격을 차단하면서 입시 시장은 현역 재학생과 졸업생 간의 이른바 '세대 간 대입 리그 분리'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맞이했다. 이는 입시 패러다임의 구조적 전복을 의미한다.

대학들이 단행한 N수생 제한 정책의 본질은 내신 산출의 이중 결합 거부에 있다. 9등급제 시절 상위 4%만이 될 수 있었던 1등급 가치와 5등급제 체제에서 10%로 확대된 1등급 가치를 대학이 평면 비교 평가하기란 불가능하다. 과거의 데이터와 완화된 데이터를 하나의 저울에 올렸을 때 발생할 공정성 시비와 수험생들의 소송 리스크를 대학들이 '지원 자격 박탈'이라는 초강수로 원천 차단한 것

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졸업 연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기회의 불평등을 마주하게 되었으며 입시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다시 한번 훼손되었다.

통계는 입시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입증한다. 서울 주요 10개 대학의 2028학년도 수시 중 N수생 지원이 제한되는 전형의 총 선발 인원은 무려 4894명에 달한다. 전년도 1942명과 비교하면 단 1년 만에 2.5배가 폭증했다. 이는 10개 대학 전체 수시 모집 인원의 24.2%에 해당한다. 상위권 대학 수시 원서 네 장 중 한 장은 졸업생이 아예 가위질당한 셈이다. 특히 정량평가 중심의 학생부교과전형은 사실상 '재학생 전용 리그'로 재편되었다. 전체 제한 인원의 83.3%인 4079명이 교과전형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지각변동은 양 집단에 극단적인 외길 선택을 강요하며 대입의 명암을 갈라놓는다. 고교 재학생들에게는 교과전형이라는 확실한 '방공호'가 마련되었다. 최상위권 N수생 유입이 원천 차단되면서 내신 등급 비효율 확대의 수혜를 고스란히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반면 N수생들은 수시 퇴로가 끊긴 채 정시 올인이라는 단선적 선택지로 내몰렸다. 우수한 내신을 확보해 둔 졸업생이라 할지라도 이를 활용할 기회 자체가 봉쇄되었기 때문이다. 수시 카드가 학종 일부와 논술로 좁아짐에 따라 이들은 강력한 수능 변별력을 확보해야만 하

는 정시 전장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는 재수 비용 상승과 수험 기간 장기화를 유도해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며 졸업생들의 심리적 압박감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구조적 변화가 시차를 두고 현재 입시 시장에 기묘한 '풍선효과'를 촉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학원가와 자료집들이 쏟아내는 메시지는 하나다. "올해가 9등급제 내신을 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2028학년도부터 수시 진입이 불가능해진다는 공포감은 전국의 반수생과 재수생들을 울해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시 시장으로 급격히 끌어당기고 있다. 졸업생들이 올해 마지막 교과 카드를 대거 던지면서 수시 합격선은 폭등할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미디어가 생산하는 정보의 과잉과 사실 학원가의 발 빠른 마케팅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지양분 삼아 성장한다. 정부와 대학은 이 거대한 혼란을 방지해서는 안 되며 즉각적인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교육 당국은 9등급제 졸업생과 5등급제 재학생 성적을 공정하게 보정할 표준 변환 점수 모델이나 정성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대학에 권고해야 한다. 대학이 평가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지원 자격을 차단하는 행위는 교육 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저버린 처사다.

/JSB진로전략연구소장

산업용 전기요금, 정교한 설계 필요해



기 지 수첩
유 혜 온
(산업부)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론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난 2021년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이 70% 이상 오른 가운데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원가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기업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정한 설득력이 있다.

다만 인하 논의는 신중하고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전력 수급, 한국전력의 재무 여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국제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

다. 미국을 제외하면 여전히 OECD 주요국이나 유럽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한다. 문제는 절대 수준보다 상승 속도다.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오른 전기요금이 경기 둔화와 맞물리면 제조업계의 체감 부담을 키웠다.

이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은 있지만 방식과 시점은 따져봐야 한다. 에너지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다. 중동 정세는 휴전 국면에 들어섰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황이다.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도 변수다. LNG 장기계약 가격은 통상 수개월 후행해 반영되는 만큼, 지난 2~3월 가격 상승분이 7~8월 하계 전력 수요기 원가에 반영될 수 있다.

전력시장도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 가스공사의 발전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은 지난 5월 7.5%, 6월 7.9% 연속 인상됐다. 전력 도매가격(SMP)도 지난 1월 103.54원에서 5

월 121.91원으로 상승했다. 한국전력의 누적 부채가 큰 상황에서 원가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전기요금을 일괄 인하할 경우 재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핵심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까지 적용할 것인가다.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인하는 에너지 수요 관리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돌아갈 정책 효과도 낮아질 수 있다.

현실적인 방향은 전력비 부담이 실적 악화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전력 다소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선별적 조정이다.

전기요금은 기업 투자, 수출, 일자리에도 연결되는 산업 정책의 한 축이다. 제조업 경쟁력 회복이라는 목표가 분명하다면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우선 배분하는 정교한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

/dhalehdhale@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5일 (음 5월 11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60년생 집을 떠나면 고생만 가득합니다. 72년생 뒷사람의 도움으로 큰 일을 해결하게 됩니다. 84년생 과음은 절대 하지 마세요.



49년생 뜻대로 소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1년생 공과사를 확실히 구분하세요. 73년생 사리판단을 분명히 하세요. 85년생 불분명한 행동은 주위로부터 신용을 잃게 하는 것이니 삼가하세요.



50년생 의지할 곳이 없으니 외롭고 서러운 마음입니다. 62년생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세요. 74년생 사업에서 방식은 금물입니다. 86년생 남의 말을 너무 그대로 믿지 마세요.



51년생 타산지석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겨주세요. 63년생 각별히 가정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75년생 욕심은 금물입니다. 87년생 때로는 고집을 조금 꺾는 것이 좋습니다.



52년생 친구들에게 회망을 걸지 마세요. 64년생 귀인이 떠났습니다. 76년생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88년생 세상과는 거리가 먼 신선의 모습입니다.



53년생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65년생 휴식을 취하세요. 77년생 정신적으로 안정이 필요할 시기입니다. 89년생 사업을 하고 있다면 때가 좋지 못해 실패할 수 있습니다.



54년생 동쪽으로의 여행은 길합니다. 66년생 가정에 크고 작은 경사가 생깁니다. 78년생 회사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90년생 서쪽에 있는 사람만 가까이하지 마세요. 해롭습니다.



55년생 돌아오는 것이 큰 것이라 길입니다. 67년생 뜻밖의 재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79년생 이곳저곳에서 이익을 들이느라 바쁩니다. 91년생 남쪽에 좋은 인연이 있습니다.



56년생 큰 거래는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68년생 자녀에게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80년생 친구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92년생 함께하는 운동은 하면 좋습니다.



57년생 자녀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69년생 오늘이 바로 길일입니다. 81년생 한가지 일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93년생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58년생 건강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70년생 쉽게 들어오는 돈을 쉽게 내갑니다. 82년생 오늘은 빨간색이 귀하게 행운의 색입니다. 94년생 정신적으로 좀 힘이 들더라도 밀고 나가세요.



59년생 금전운과 이성운 모두 좋은 시기입니다. 71년생 독단적인 행동은 절대로 삼가하세요. 83년생 가까운 사람과 다투지 마세요. 95년생 좋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주지 마세요.



김상회의四季 호국의 달에 이순신

필자가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을 꼽으라면 이순신 장군이다. 탄생일은 양력으로 1545년 4월 28이며 전사일은 1598년 향년 54세로서 11월 19일이다. 설명이 필요 없는 그분의 생애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용병과 전술의 장군이다.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부와 외부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뛰어난 지략과 전술로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였으니, 군함을 단 한 척도 잃지 않고 23전 23승 불패 신화를 이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이뤄낸 명장이었던 것이며 임진왜란이 끝난 후 장군은 적국인 일본에 의해서 더 연구되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효심이 깊고 아들 사랑 또한 지극하여, 셋째 아들 이편이 아산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의 '난중일기'에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가슴 찢어지는 아픔으로 가득하다. "대충 뜯고 곁을 보니 '통곡'이란 두 글자가 쓰여 있어 면이 전사했음을 알았다. 통곡하고 또 통곡하다! 하늘이 어찌 이렇게 어질지 못하실 수가 있는가. (중략) 혼은 죽고 가족만 남아 부르짖고 서글피 울 뿐이다. 하룻밤을 넘기기가 한 해와 같도다." 그럼에도 장군은 부하들이 있는 곳에서는 울지 않았는데, 후담에는 하인 강막지(姜莫只)의 소금 창고에 숨어서 울었다고 나와 있다. 그 열악한 물자와 환경 속에서도 혼신을 다해 전쟁 준비를 하고 전 세계가 경탄하는 승리를 이뤄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조선의 운명은 그렇다 치고 오늘날 날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아찔한 두려움마저 느끼게 된다. 당시 조정에서 유일하시되 장군을 옹호하고 편을 들었던 서예 류성룡의 장비록에 의하면, "이순신은 말과 웃음이 적었고 용모는 단아했으며, 항상 몸과 마음을 닦아 선비와 같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세익한빌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9	7	8	5	1	2	3
2	8	9	1	6	2	8	7
1	9	2	6	8	2	7	9
8	7	1	9	2	8	6	9
7	8	9	2	9	1	6	8
2	6	2	1	9	8	7	8
9	2	8	2	7	1	6	9
8	1	8	7	6	9	9	2

4	9	8	7				6
	6		2	5	4	3	
			5		9		4
						6	
			2				4
1	3		6		2		
		8	9	3	7		2
2			8	3	9	1	

7	1	6	8	8	2	9	9	2
9	2	9	2	8	6	8	1	7
6	8	9	2	7	9	2	8	1
2	8	2	8	9	1	7	6	9
1	9	7	9	6	2	8	2	8
8	2	8	9	1	7	9	2	6
2	7	1	6	2	9	8	8	9
8	6	8	7	9	2	1	9	2
9	9	2	1	2	8	6	7	8

서울교육청, 대학명 따라 A~E조 분반... '서열화 공인' 논란

내달 11일 2027학년도 수시 설명회 입시권서 통용되는 주요 대학군 반영 소재지·전공보다 입결·선호도 무게 수요조사 없이 일부 교사 의견 참고 연구원 "실제 지원전략 위한 구성"



서울시교육청 용산청사.

서울시교육청이 2027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설명회에서 대학들을 사실상 입결과 선호도에 따라 등급화된 대학군으로 나눠 운영하기로 하면서, 공교육 진학지도 현장에서 대학 서열화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입시 경쟁 완화와 '줄 세우기' 해소를 강조해 온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교육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은 다음 달 11일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원에서 '2027대입 수시의 이해와 대비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1교시 공통 강의와 2교시 맞춤형 분반 강의로 구성된다.

문제는 2교시 분반 구성이다. 교육연구정보원이 '맞춤형 분반'이라고 소개한 2교시 강의는 실제로 대학명을 기준으로 A~

E조로 나뉘었다. ▲A조(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B조(경희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C조(건국대, 동국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홍익대) ▲D조(국민대, 광운대, 서울과기대, 숭실대, 세종대) ▲E조(단국대, 명지대, 상명대, 아주대, 인하대) 등이다.

입시 현장에서 통용되는 이른바 '서열고·서성한', '중경외시이', '건동홍숙' 등

대학 서열식 분류와 사실상 다르지 않다. 이번 분반은 대학 소재지나 전공·전형 특성보다 입시 현장에서 통용되는 주요 대학군 인식을 기준으로 짜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연구정보원 관계자는 "서울 및 경기권 주요 16개 대학이라고 통칭되는 대학들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분반표에는 서울 소재 대학 중 일부가 빠진 반면, 아주대와 인하대 등 경기권 대학은 포함됐

다. 입시 현장에서 선호도와 입결을 기준으로 묶이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설계한 셈이다.

같은 사업 안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진학지도 동영상도 계열·전형 중심으로 구성된 점과도 대비된다. 교육연구정보원은 수시 진학지도 동영상을 의약학계열, 첨단학과·계약학과, 간호·보건계열, 전공자유선택제, 기회균형전형, 특성하고 특별전형 등 12종으로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온라인 자료는 계열과 전형을 기준으로 세분화하면서, 정작 오프라인 설명회는 대학명과 입결 중심으로 편성한 셈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사교육 시장에서 야 대학을 서열식으로 묶어 설명할 수 있지만, 교육청 산하기관이 같은 방식으로 설명회를 구성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공교육 진학지도라는 이름으로 대학명을 입결 순서에 가깝게 묶어 제시하면, 교육청이 대학 서열을 공인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의 기조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속한 진보교육감 진영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입시

경쟁 해소와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공동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 교육감도 상 대평가와 대입이 결합한 '줄 세우기' 경쟁의 문제를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교육연구정보원 관계자는 "분반 방식이 서열화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은 고민했다"면서도 "이번 설명회는 이미 성적이 나온 고3 수험생과 학부모가 실제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우도록 돕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시는 6종의 지원 기회가 있고, 실제 수험생들은 내신 성적에 따라 비슷한 대학을 함께 검토한다"며 "한 학생이 함께 지원할 가능성이 큰 대학들을 묶어 비교 분석과 지원 전략을 제공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별도의 수요조사나 통계 자료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소속 교사 100여명 중 일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해명했다. 또 "온라인 동영상은 교사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열별·전형별로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안성시, 기후행동 특별 리워드 도입

경기주식회사와 플랫폼 운영 계약 건기·대중교통 등 탄소감축 보상

안성시가 시민들의 탄소중립 실천을 장려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안성시는 최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와 '기후행동 기회소득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경기도가 개발·운영하는 탄소중립 실천 플랫폼으로, 도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기록하면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지역화폐 형태의 보상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안성시는 기존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경기도가 제공하는 기본 리워드에 안성시 자체 예산을 추가한 '안성시민 특별 리워드'를 도입해 참여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별 리워드 적용 대상은 ▲건기 ▲대중교통 이용 ▲자전거 이용 ▲폐전자제품 재활용 ▲배달음식 다회용기 이용 등이다. 이에 따라 안성시민은 경기도 다른 시군 참여자보다 평균 35% 이상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성시는 이와 함께 시민만 참여할 수 있는 '5대 특화 실천활동'도 새롭게 운영한다. 주요 내용은 ▲녹색장터·자원순환가게·순자마켓 이용 등 자원순환 실천 ▲새벽시장·초록상점 이용을 통한 탄소중립 소비 ▲절전·절수 인증 ▲서운산 야영장 다회용기 이용 ▲카페 다회용컵 이용 등이다. /안성(경기)=김대의 기자 dykim@

서울 70세 이상 버스요금 지원 길 열렸다

서울시의회, 어르신 교통비 조례 가결 시내·마을버스 요금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가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우선 버스요금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는 24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석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이병윤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



서울시가 추진한 70세 이상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스1

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가운데 시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시가 예산 범위에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현재 65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최소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대신, 7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버스를 월 최대 14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내용은 이번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행 법령상 해당 방안의 시행 가능 여부와 추진 방식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서울시는 사회적 논의와 예산 확보 절차를 거쳐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버스요금 지원을 포함한 대중교통 제도 개편 시행 시기를 정할 방침이다.

정재 부단도 쟁점이다.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버스 무임승차 지원이 도입될 경우 매년 1000억원 이상, 향후 5년간 총 5788억6000여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2 | 해질 / 19:57

6월 25일 (목) 음력: 5월 11일

수도권 날씨 19~28°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16/27, 동두천 16/27, 가평 15/26, 파주 16/27, 서울 19/28, 양평 17/28, 인천 19/28, 수원 19/27, 용인 19/27, 평택 19/28, 백령도 17/23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BK21 AI융합·지역연합 7개 연구단 선정

교육부, 중앙대 등 4곳에 42억 지원 경북·충북대 등 3곳에 30억 투입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4단계 두뇌한국(BK)21 신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서울시립대·인천대·중앙대·한양대 등 AI+X 융합형 교육연구단 4곳, 경북대·충북대·전남대 등 지역대학 연합형 교육연구단 3곳을 선정했다. 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중앙대·포항공대 등 10개 대학은 학부 이공인재 지원 대상으로 뽑혔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4일 4단계 BK21 2026년 신규 시범사업인 인공지능 융

복합(AI+X 융합형) 교육연구단, 지역대학 연합형 교육연구단, 이공 우수인재 성장경로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AI+X 융합형 교육연구단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3개 이상 분야를 결합한 대학원 교육·연구 체계를 지원하는 유형이다. 전국 단위로 총 25개 교육연구단이 신청했으며, 평가 결과 ▲서울시립대 데이터사이언스 융합전공(AIX 기반 환경보건 지능형 디지털 트윈 교육연구단) ▲인천대 인공지능 융복합 바이오 제조 융합전공(바이오 공정 혁신 AX 융합 교육연구단) ▲중앙대 인공지능 융합전공(첨단

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AX-Native R&D 교육 사업단) ▲한양대 융합기계공학과(AI+X 첨단제조 사회-기술 융합 교육연구단)가 선정됐다. 선정된 4개 교육연구단에는 2027년 8월까지 총 42억원이 지원된다. 지역대학 연합형 교육연구단은 지역 거점국립대와 인근 대학이 함께 권역 단위 공동 교육·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3개 권역에서 총 9개 교육연구단이 신청했으며, ▲경북대 융복합시스템공학과(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전주 지역혁신 인재양성 교육연구단) ▲충북대 토목공학부(시민체감형 사회안전 스마트시티 교육연구단) ▲전남대 약학부(호남권 미래신약 개발 융합 교육연구단)가 선정됐다. /이현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이란전에 미 무기 재고 부족 우려... 트럼프, 방산업계와 회동 /사진 뉴스1
▲"미·이란 협상 난항... 트럼프 임기 내 합의도 불확실"

▲유가 200달러 간다더니... 中, 원유 덜 사며 시장 높였다
▲헝가리 총리 바뀌었지만... 우크라이나 EU 가입 협상 제동 '속도 조절'

▲"3천만불 부자들, 전 세계 55만명... '삼전닉스' 서울도 6000명"
▲네덜란드, 12세 미만 아동 안락사 첫 시행... 연령·범위 등 두고 논란



유통업계
생존 전략은
배송 속도
니



Life

홈플러스
경영남 직격탄
정상화 안갯속
L2



기업이 대신 타준 '황금비율' 섞는 수고 덜고, 청량함 채웠다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동아제약 '얼박사'

이제는 소비자가 스스로 문화를 만들고 기업이 이를 포착해 완성도를 높이는 '모디슈머'의 시대. 모디슈머는 '수정하다'라는 뜻의 모디파이와 '소비자'를 의미하는 컨슈머라는 두 개 영어단어를 합친 단어다.

대한민국 자양강장제의 대명사 '박카스'를 보유한 동아제약이 최근 음료 시장에서 일으킨 메가히트 신화는 바로 이 모디슈머의 목소리에 완벽히 귀를 기울인 결과물이다.

동아제약의 에너지드링크 '얼박사'가 출시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3500만 캔을 돌파하며 대한민국 음료 시장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 얼음과 박카스와 사이다를 조합한 대중의 레시피를 단 한 캔의 완제품으로 구현한 동아제약의 역발상 스토리를 들여다본다.

'얼박사'라는 이름은 젊은 세대에게 결코 낯설지 않다. 편의점, PC방, 대중 사우나 등에서 피로를 단순히 해소하기 위해 얼음컵에 박카스와 사이다를 섞어 만든 청량감과 달콤함은 2030 세대의 '소울 푸드'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막상 이를 마시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번거로움이 따랐다. 편의점에서 얼음컵을 사고, 박카스 한 병과 사이다 한 캔을 각각 구매해 직접 비율을 맞춰야 했기 때문이다.

동아제약은 이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소비자들이 이미 열광하고 있는 검증된 맛을 가장 편리하고 경제적인 형태로 제공하면 어떨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했고 지난해 6월 마침내 '얼박사'가 탄생했다.

소비자가 직접 제조하는 기존 방식 대비 가격을 최대 32%나 낮추며 가성비를 극대화했고 355mL 용량의 청량감 넘치는 탄산 캔 형태로 설계해 편의성을 더했다. 피로 회복의 핵심 성분인 타우린을 무려 1500mg 투여하고 비타민 B군 3종을 더했다. 맛뿐 아니라 에너지 드링크 기능성까지 탄탄하게 채워 넣은 것이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얼박사는 GS25 매장 판매 기준,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 캔을 돌파했다. 기세는 여가서 멈추지 않았다. 출시 두 달 만에 누적 250만 캔을 넘어서며 GS25 음료 카테고리 매출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온라인 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의 입소문도 화력을 보냈다. 독특한 곡선 형태의 캔 디자인과 생동감 넘치



'얼음+박카스+사이다' 대중 레시피를 구현한 '얼박사'



설탕 빼고 칼로리 낮춘 '얼박사 제로' /동아제약

는 패키지는 '인스타그램머블(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한 요소로 작용했고, 2030 소비자들은 '이제 귀찮게 섞을 필요가 없다', '아는 맛이 무섭다는데 딱 그 맛이다'라며 열광했다.

동아제약은 이 같은 성원에 힘입어 시장의 또 다른 거대한 흐름인 '제로 슈거(저당)' 및 '헬시플레저(즐거움 건강관리)' 유행에 주목했다. 맛있는 탄산음료를 즐기고 싶지만 설탕과 높은 칼로리에 부담을 느끼는 젊은 세대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곧바로 제품군 확장에 착수했다.

올해 3월, 355mL 한 캔 기준 설탕을 빼고 칼로리를 단 10kcal로 낮춘 '얼박사 제로'가 세상에 나왔다. 오리지널의 중독성 있는 레몬 라임 향과 청량한 탄산감은 고스란히 유지하면서도 당류를 제거해 건강에 대한 부담을 없앴다. 활력 보충을 위해 타우린 1000mg과 비타민 B군 3종을 함유하는 균형 잡힌 설계도 놓치지 않았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오리지널 못지않게 뜨거웠다. '얼박사 제로'는 출시 한 달 만에 판매량 200만 캔에 도달하는 저력을 보였고 단 기간에 누적 판매량 600만 캔을 넘어서며 대세 군거기에 들어갔다.

오리지널 제품과 제로 제품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이 더해지면서, 얼박사는 출시 1년 만

에 총 누적 판매량 3500만 캔 돌파라는 대기록을 작성했다. 대한민국 인구를 고려하면 국민 5명 중 3명 이상이 얼박사를 마신 셈이다. 얼박사의 폭발적인 성장은 동아제약 전체의 경영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동아제약의 올해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전통 효자 상품인 박카스 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0% 성장한 606억원을 기록했다. 경기 침체와 소비 둔화 속에서도 두 자릿수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던 핵심 동력으로 신제품 '얼박사'가 꼽힌다.

특히 박카스D의 매출은 3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늘며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동안 박카스F, 젤리, 얼박사 등이 포함된 부문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8% 커진 358억원이다. 출시 1년 차인 얼박사가 브랜드 전체의 괄목할 만한 세대교체와 가파른 도약을 견인하고 있는 셈이다.

동아제약은 이번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소비자 중심경영을 바탕으로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품질 개선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포부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얼박사가 출시 1년 만에 3500만 캔이라는 판매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급변하는 국내 유통 시장에서 제품을 믿고 선택해 주신 모든 소비자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건강한 활력을 제공하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신선하고 건강한 음용 문화를 제안하는 독보적인 브랜드로 얼박사를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얼음+박카스+사이다 조합한 음료 대중의 레시피, 완제품으로 구현해 출시 1년 만에 누적판매 3500만캔

청량감·달콤함에 피로회복 기능까지 인스타 등 SNS 입소문 타며 인기돌풍

헬시플레저 유행에 얼박사 제로 출시 칼로리 낮추고, 활력 보충은 그대로 한 달 만에 200만캔 판매... 시장 안착 건강한 음용문화 제안하는 브랜드로



▲남아공전 앞둔 흥명보 감독, 한국인 사령탑 최초 2승 정조준
▲'호날두 2골' 포르투갈, 첫 승리...콜롬비아는 콩고 꺾고 32강행 /사진 뉴시스

▲잉글랜드, 가나와 0-0 무승부...크로아티아는 파나마 꺾고 첫 승
▲통계 업체 예측...한국, 남아공전 승리 확률 56.2%

▲"월드컵 중계권료 일부 미납" 보도에 JTBC "중계 차질 없다"
▲펜싱 여자 사브르, 아시아선수권 단체전 우승... 남자 에페는銅

AI·BIO 융합기술로 건강한 미래의 답을 찾다

LG는 AI와 BIO기술의 융합을 통해 암, 알츠하이머 등 다양한 질병의
정밀진단과 신약개발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여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미래, 같이

AI로 세상을 미소 짓게 하는
미래가치를 만듭니다

